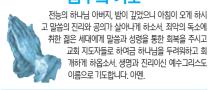
금주의 기도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2012년 9월 8일 (토) 제 140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인물 아닌 보수정책에 투표

CT, 공화당 몰몬교 대통령 후보, 롬니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 찬반논란 소개

4년 전 미국의 "변화"를 외치며 혜성처럼 등장한 오 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흑인이었지만 미국인들에 게 다시 한 번 변화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갖게 만들었 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자녀들 의 미래를 맡기에는 의문이 든다며 선뜻 지지를 보내 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상위 1%에 속하는 부유층 자제로 태어 나 전통적인 엘리트 코스를 마치고 기업인으로도 성공 해 진보적인 매사추세츠에서 보수적인 정책으로 주지 사를 역임한 롬니 공화당 후보 역시 아직까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지난 대선부터 6년 동안이나 예비 된 대 통령 후보라는 캠페인을 펼치지만 아직까지도 롬니 후 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민주, 공화당 후보로 나선 이들 에게 분명한 지지표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지 구촌 초강대국인 미국을 이끌어나가기에는 리더로서

지난 주 플로리다 탬파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허리케인 아이 삭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 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당대 회 마지막 날,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롬니 후보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지지도 경쟁 에서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1-2 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었는데 전당 대회를 마치고 나서 동일한 포인트 로 오바마 대통령을 추월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번 주 열린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가 종료되고 나면 또 다시 지지율에서는 별 차이가 없 거나 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롬니는 2008년 대선 때부터 등장 해 강력한 후보로까지 급부상했지 만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이미지 외에는 미국인들에게 분명하게 각 인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번 공화 당 예비 경선에서도 절대적인 지지 를 받지 못하고 정치 신인이지만 확

의 영향력이나 성품, 그리고 역할 수행 능력에 미덥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한 가지 쟁점 을 더 고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보주의적 개신교 크 리스천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주의 성향 이지만 몰몬교라는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단시하 는 종교를 믿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 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이 러한 복음주의 진영의 갈등을 소개해주고 있다(Is There Anything Wrong With Voting for a Mormon for President?). 또한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 는 롬니 후보에 대한 능력이나 성품보다는 몰몬교인이 기에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Pastors Lists "Mormon Cult Errors, Says Those Who Love

Jesus Won't Vote Mormon).

2012년 대선에서 미국인들은 맘에 들지 않은 두 후보를 놓고 선택해야 하 는 입장에 처했다. 후보들의 인격이나 역량보다 정책이 선택기준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연하게 보수주의자로 입장을 굳힌 릭 센토롬 후보와 각축을 벌일 정 도였다.

따라서 보수성향의 이코노미스

트(The Economist)지는 공화당 전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롬니 후보에 게 "당신이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떠 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물었 다(The Presidency, So, Mitt, what do you really believe?: Too much about the Republican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is far too much mysterious).

롬니는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2012대선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문 제들 즉 낙태와 총기규제들을 지지 했었다. 그러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로 입지를 굳히자마자 롬니는 낙태 와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했다.

또한 그는 1년 전만해도 모든 미 국인들은 균등하게 세금을 낼 수 있 도록 공약을 던졌지만 오히려 미국 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바로 부 유층들의 세금을 35%에서 28%로 감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리더의 능력이나 역량은 방 향이나 솔직함, 인품이나 인격 그리 고 신앙이 뒤받쳐주지 않으면 오히 려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이 점 은 바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 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목 이다.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키겠다 며 미국의 변화를 외쳤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루즈벨트, 레 이건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는 미치 지 못한다.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들 을 위해 여러 번 말과 행동을 번복 했기 때문이다.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 은 미 언론들로부터 "리더의 성격 과 인품" 영역에서 69%라는 지지도 를 받았다.

〈2면으로 계속〉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7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13면 불기둥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정총해 박사

여리고로 가는 길(1)



16면

선교사와의 만남 (3)

손영규 선교사

크리스전 리더 필수쪼건은 "영향력"

리더십저널, 댈러스신학대학원 오브리 맬퍼스의 리더십 핵심 소개

현대사회에서 리더십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주 제다. 어느 분야에서든 리더십이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고,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리더십의 원 칙과 방식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점령했다. 하나님이 말씀하 시는 리더십보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에 더 귀 기울이는 그리 스도인 리더가 늘고 있다.

댈러스 신학대학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오브리 맬퍼 스는 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크리스천 리더십을 시작한 다. "리더십이니 리더 양성이니 하는 말은 자주 하면서 막상 무 엇을 개발하고 양성하는지 모른다면 어찌 되겠는가?" 따라서 그는 영향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이자 반드시 발휘돼야 하는 요소라고 정의한다.

리더십=업무수행(목표달성)+대인관계(인간관계) 자신의 고유리더십 유형 융통성 있게 조절능력 필요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리더십을 정의할 때 마다 꼭 빠지지 않는 말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 가?'라는 점이다. 영향력과 리더십은 바늘과 실이다. 영향력 없 는 리더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사람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뢰받고 역량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다면 영향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영향력의 열쇠는 리더의 통솔 방식이다. 리더는 누구나 사람 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 따라 서 리더라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 는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크게 업무 수행과 대인관계라는 행동 양식으로 구 별된다. 업무수행은 목표달성이 초점이고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인간관계가 초점이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리더십은 모두 업무수행과 대인관계 라는 2가지 범주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통솔방식은 업 무수행 중심인가, 대인관계 중심인가, 아니면 2가지 모두인가를 놓고 평가하게 된다.

이 2가지의 행동 양식은 각각 독립적이다. 업무수행에 해당하 는 행동으로는 목표설정하기, 계획 수립하기, 전략 세우기, 성경 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사역을 조직하기, 조직 구성하기, 책임과 업무 분담하기, 구체적인 활동 내역 정하기, 규정 만들기, 사역 결과 평가하기 등이 있다.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행동은 동료애 확립하기, 신뢰형성하기, 단체정신 기르기, 동기 부여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격려하고 도움 주기, 성경적인 공동체 만들기, 친밀한 관계 형성하기, 장 래계획 상담해주기,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기, 실의에 빠진 사람 격려하기 등이 해당된다.

〈3면으로 계속〉

미주 〈기독일보〉 설립자 장재형은 누구인가?

장재형의 재림주이론은

"예수님의 초림이 실패해서 재림주가 나타나 과업 을 완수해 가야 한다"는 통일교의 불경한 이론으로, 그는 1975년 2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교 합동 결혼식에 참가한 1800가정 출신이다.

장재형은 선문대 교수와 신촌학사장, 순회 전도단 단장, 금산지부장 등 과거 통일교와 관련된 산하단 체에 몸담으면서 활동했던 통일교 핵심간부로, 현재 WEA의 북미이시이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올리벳대학교 설립자, 예장합동복음의 증경총회장 등으로 활동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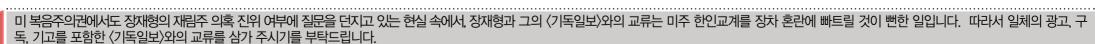
권위 있는 세계적 기독언론지 〈크리스채니티 투데이〉가 의혹 제기한

500 6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 〈크리스채니티 투데이〉는 금년 9월호에서 '한국의 장재형은 재림주인기(The Second Coming Christ Controversy)' 라는 제호의 특 집을 통해 장재형의 통일교 전력을 소개하고,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가 다시 오실 재림주라고 믿게끔 가르친 여러가지 정황을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부터 홍콩에서 불거져 나온 장재형의 이단 의혹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장재형과 그가 발행한 한국, 호주, 유럽의 〈크리스찬 투데이〉와 미주에서 발행되는 〈기독일보〉 와는 일체 관계를 단절하고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때까지 미주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기독일보〉와의 관계를 유보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로 우리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소속사와 (기독일보)와의 광고싸움, 세력 경쟁으로 오해하는 바람에 여전히 우리들의 입장은 교회에 전달되 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장재형 추종자들은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에 침투하여 한기총은 '이단 한기총'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급기야 장로교 통합 측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 토하여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창립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장재형 집단의 이단성이 만천하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발생한 가슴 이픈 분열의 결괴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기독일보〉와 장재형에 관한 종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함으로 미주 교계가



장재형과 〈기독일보〉는 관계가 없다고 지금에는 발뺌을 하고 있으나, 이미 자신들의 입으로 그 관계가 시실임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채니티 투데이〉의 특집 기사를 보고 〈기독일보〉가 한 페이지에 걸쳐 반박 기사를 보도하면서 〈크리스채니티 투데이〉 취재기자를 미성년을 대상으로 포르노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악의에 찬 공격을 가한 것을 봐서도 장재형과의 관련성은 분명해 집니다 **(기독일보 8월 23일 4면 참고).**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는 장재형 추종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미주 내 연계 활동을 적극 반대합니다.

이 같은 간곡한 주장은 미주 지역에 활개치고 있는 이단들을 막아서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독언론은 마땅히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곡한 호 소에도 불구하고 장재형이 만든 〈기독일보〉와 계속 유대관계를 유지해 가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이단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우리 모든 소속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캡티니티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1982년 1월 13일에 미국의 워싱턴 내셔 널 공항에서 막 이륙한 에러 플로리다 여 객기가 꽁꽁 얼어붙은 포토맥 강에 추락 해 78명이 목숨을 잃었다. 원인이 무엇인 지를 조사하던 중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 을 분석하면서 조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 한다. 부기장이 기장에게 비행기 뒤편 날 개 상판에 얼음이 붙어있는 사실을 발견 하고 살펴보기를 건의하였는데 기장은 이 륙해야 한다는 말로 부기장의 제언을 묵 살하고 이륙을 감행한 결과였다. 기장이 부기장의 주장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다면 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

웃라이어'를 쓴 맬컴 글래드웰은 수많은 항공기 사고가 조종실 내의 의사 소통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비행기 승무원들 사이의 위계질 서로 인해서 부기장이 기장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직언하기가 어렵고 기장 역시 부기장의 조언을 무시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렇게 조종사들 이 기장(captain)의 권위에 짓눌려 제 역할을 못하는 현상을 캡티니티스 (captinitis)라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병원 간호사실 22곳에 전화를 건 뒤 의사를 사칭하 고 무허가 약품을 특정 환자에게 주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봤다. 그런데 놀 랍게도 21명이 아무 이의 없이 약품을 꺼내러 갔다. 의사들의 권위가 워낙 크다보니 간호사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이 몸에 밴 것이다. 심리학자인 로 버트 치알디니는 이러한 독불장군식 리더십이 캡티니티스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리더일수록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들의 현실이다.

예배당을 새로 구입하고는 이전의 구조를 개편하여 새롭게 나아가고 싶 은 마음이 많았다. 그중 한 가지 결심한 것이 금요일 저녁에 모이던 구역 모임을 주일예배 이후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작은 예배당 건물에 서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이제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좁게라 도 각 구역들이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다가 금요일 저녁 에는 영성집회를 가져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었고, 또 교회에서 점심을 들고난 후에 구역모임을 가지면 교인 가정의 부 담이 줄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당회에서 찬성을 했으니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풀타임 중심의 전임교역자 회의에서 역시 반대가 없었고, 구역장들을 소 집하여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좋겠다는 분들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애 초의 계획은 순항을 거듭하여 이윽고 주일날 발표에 이르렀다. 그 후 주일 학교 사역자들과 회의를 하는 중 이 문제를 이야기하였더니 그들 역시 반 발은 못했지만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게 했 다. 그랬더니 우리의 건물이 아직은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지 못하고, 또한 아침에 교회에 나온 어린이들이 오후까지 지내는 것은 어렵고 청소 년들을 통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등등의 문제들이 산처럼 제 기되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보니 아무래도 이 계획을 실 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 터 구역모임을 원래대로 하겠다고 하였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씀. "그게 좋 을 겁니다!" 나는 되물었다. "그럼, 왜 첨부터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니 까 "교회당 이사하고 목사님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안건을 어 찌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겠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나에 대한 배려에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도, 내 목소리 가 너무 커서 그분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 행되었다는 사실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돌아보니 내가 안건을 낸 것에 대해서 내 아내나 별 부담없이 반대할까 (이번 일은 아내는 반대했는데 묵살했다), 심지어 장로님들도 쉽게 반대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 민주주의를 해야 한 다고 여기는데도 이러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권위주의는 극복해야 하고,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는 성 령공동체로써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면서도 성도 들과의 소통을 확보해야 사역을 그르치지 않으니 권위를 가진 목회자가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소통에 힘써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 같다.

크리스천 여성, 영적 내공 역시 강건하다!

바나리서치, 미국교회 크리스천 여성 설문조사 중 3번째 결과 발표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여성들의 영적 건강 상태는 온전하다. 그만 큼 크리스천 여성들 본인의 신앙평가나 영적 건강 조건들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바나리서치는 3번째로 크리스천 여성들의 영 적 복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Christian Women Today, Part 3 of 4: Women Give Themselves an Enmotional and Spiritual Check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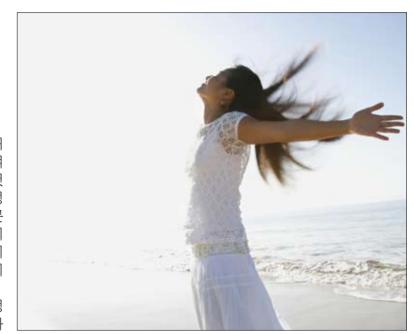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있어 우선 순위는 바로 자녀교육과 영성 훈련 과 계발이다.

많은 여성들이 교회공동체에서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 다고 응답하고 있다(52%). 이들 중 38%는 친밀하게, 43%는 밀접하게 기도나 찬양 그리고 묵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생활 에 적용하고 있다고 답한다.

영적 생활 만족도에 따른 좀 더 실제적인 응답을 묻는 설문에, 73%는 "기쁨"과 "영적 해방"이라 고 응답하고, 67%는 어느 정도의 성취감마저도 맛보고 있다고 대답

욕심, 과식, 나태, 분노, 질투와 허 영과 전통적인 죄는 크리스천 여 성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현재 크리스천 여성 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 제는 다름 아닌 '자신이 체계적이 지 못하다"고 50%가, "비효율적이 다"고 42%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죄에 있어서는 8% 정 도가 "성욕"으로 고민한다고 답하 며,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정형화 된 '질투'는 13%가 그리고 '분노' 에 대해서는 36% 정도가 고민하 고 있다. 또한 25% 정도가 "이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관 계의 영원한 단절이 여성들이 손꼽 은 가장 아픈 경험이다. 즉 29%는 덕상의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들이 있지만 이들 문제는 거의 한 자리 숫자에 그쳤다.

영적 생활의 부정적 측면은 3% 불과..기쁨·영적해방 73% 가장 큰 갈등은 비체계적, 비효율적...관계단절·상실엔 큰 상처

반면에 영적 생활의 부정적인 측 면에 대해서는 오직 3%만이 자신 들의 신앙에 대해 혼돈을 겪거나 의심하며 두려움을 갖는다고 대답 하고 있어 대조가 된다.

따라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죽음 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즉 성욕,

심" 때문에, 19%는 자신들이 너무 논쟁적이며 무식하다고 16%정도 가 갈등을 호소하고 있다.

"여자는 감성적 동물이다"는 말 이 있듯이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있 어 가장 큰 상처는 바로 관계 단절 이거나 상실이라는 점이 재삼 확인

생전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가 장 힘들고 이겨내기 어려운 상처라 고 말한다. 또한 20%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상처를 준다고 말하며, 9%는 이혼이나 나쁜 결혼 생활이 자신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실망 중 의 하나라고 답한다.

여기에 건강 문제, 재정이나 도

적인 요소는 바로 그가 자신을 성

공한 기업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동 리서 치의 킨너맨은 긍정적이라고 평가 했다. 그만큼 과반수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내공에 만 족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신앙생활 이라는 여정에 의도적이라는 사실 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는 오 히려 "부정적"이라고 72%의 미디 어가 지적하고 있다(The Master Character Narratives in Campaign 2012: Press Coverage of the Character of the Candidates is Highly Negative, and Neither Obama nor Romney Has an Edge).

롬니 후보 역시 미디어로부터 " 부정적"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 보다 한 포인트 뒤진 71%에 머물 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 공화 양 후 보의 성격이나 인품에 기대하는 미 국인들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기존에 가졌던 입장이나 소신 을 번복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도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0주 동안 50개 미디어를 통해 두 후보가 행 한 연설이나 기자들과의 대화와 같 은 사적인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가 이처럼 부정적인 것은 이유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회 생시키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4년 동안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실패작이다. 그러나 그 는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회복되고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 을 한다.

그리고 주류사회 미디어들이 지 적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식 자본주의 와 개인주의의 이상들을 믿고 있는 가? 라는 점이다.

롬니 후보의 경우 첫 번째 부정

은 노동자나 직원들을 전혀 고려하 지 않은 재벌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신을 '보통 미국 사람'이라고 하 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보통 미국인

과 다른 상류 엘리트 가문에 속했 음에도 자신을 "블루칼라"라고 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인들은 대통령 후보의 인품이나 솔직함이 배어있지 않는 "역량"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두 후보의 배경 즉, 진보 아니면 보수 성향의 정책을 펼쳐나갈 정당 색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미 언론 의 공통된 분석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처시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उर्ध श्री धुन्न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특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플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햄함)
-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ain Campus: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완벽한 선택은 없다

http://www.chpress.net

CT, 공화당 몰몬교 대통령 후보, 롬니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 찬반논란 소개

〈2면에서 계속〉

실제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텍 사스 주 대의원 맨디 쇼페는 "미트 롬니 후보를 왜 지지하느냐"는 언 론의 질문에 가방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 세 자녀 (5·9·11세)를 가리키며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 이 든다"면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롬 니"라고 강조했다.

롬니는 정통 기독교가 아닌 몰몬 교도인데다 군 복무경험이 없고 감 동을 주는 스피치 능력도 부족하다. "1984년 이후 공화당 대선후보 중 에서 가장 인기 없는 인물"이란 인 색한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이날 타임스포럼의 2만 2000개 좌석은 붉은 깃발이 휘날렸 다. 정치 전문가들은 "재미없는 롬 니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세금인하, 규제완화, 재정 지출축소 등을 골자 로 하는 공화당의 '작은 정부'에 지

공화당 지지파와 민주당 지지파 는 국가에 대한 비전이 다를 뿐 아 니라 라이프스타일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원의 투 표 참가율도 71%로 민주당(61%)을 웃돈다. 보수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진영에서 몰몬교도인 롬니 후보를 반대하는 우익 진영의 선봉에 서 있 다면,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완 벽한 대안"은 없다며, 롬니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몰몬화 경향을 심도 있게



이지, 영적인 권위자가 아니기에 어 떠한 종교적인 견해를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풀러신학교의 리차드 모우(Richard Mouw) 총장 역시 걱정하지 말 고 롬니에게 투표하라고 말한다. 지 난 수 십년 동안 그는 몰몬교인들과 친분을 다졌으며 몰몬교 문헌들에 도 오바마 대통령이 펼치는 진보적 정책들보다는 비견되거나 악한 영 역이 없다고 단정한다. 몰몬교인들 역시 성경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화(샬롬)의 굳건한 대리인이기에, 롬니 를 지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말한 다. 그러나 롬니 진영에 반드시 건 강하고 온전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 진 참모들이나 멘토들이 있기를 희 망하고 있다.

결론으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 거에 나선 민주 공화 양당 후보에 대한 신뢰도나 인기는 희박하다. 사 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오 바마 대통령이나 과거에 기업인으 로 성공한 롬니 후보에게 "죄송하 다" 또는 "회개한다"라는 솔직한 반 성을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에 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역량"이 나 "능력"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자 신들처럼 미국을 사랑하고 인간다 운 냄새가 나는 후보를 사랑한다. 한때 알코올 중독자에서 예수를 만 나 새사람이 됐다고 간증한 부시 대 통령이 아직까지도 미국인들의 뇌

개인 "역량"보다 세금인하, 규제완화, 재정지출축소...작은 정부 기대

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정 부 자체가 바로 문제다." 로널드 레 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1년 1월 취임식 때 남긴 명언이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뒤 미국 정치권에서 '작은 정부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 을 정도로, 미국인들은 오바마 행정 부의 지나친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 어나고 싶어한다.

따라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 트 롬니 대통령 후보, 폴 라이언 부 통령 후보와 찬조연설자로 등장한 인물들이 일제히 버락 오바마 정부 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재정지출 축소 △세금인하 △기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작은 정부'의 기 치를 내걸었다.

이런 보수주의에 열광하는 공화 당 지지파는 누구일까?

미국 스카버러 리서치가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유권자 성 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기간 중 사냥경험(공화당과 민주당 비율 각각 11%, 4%)이 있고 △종교단체에 기부(58%, 39%)를 많이 하며 △폭스뉴스(46%, 16%) 를 시청하고 △컨트리뮤직콘서트 (11%, 6%)에 자주 다니는 성향을 갖고 있다. 또 공화당 지지파의 백 인 비율은 92%로 민주당(58%)을

의지가 더 강한 셈이다. 공화당 지 지자 중 대졸자 비율은 67%, 민주 당은 45%로 교육 수준에서도 차이 가 있다.

결국 공화당이 공약으로 내세우 는 경제성장 동력은 정부 아닌 민간 기업이며, 세금인하 정책이 경제 살 리는 길이 된다.

한편 미국인들이 대통령 후보보 다는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에 선택 의 저울을 두고 있다면, 복음주의 진영은 롬니 후보의 몰몬교 신앙에 대한 갈등에 빠져 있다.

스테반 앤드류 목사는 미국 크 리스천 미니스트리의 수장이면 서 2011년 출간된 책(Making a Strong Christian Nation)의 저자 이다. 그는 몰몬교를 다음과 같은 5 가지 이유로 철저하게 배격한다:

1)몰몬은 하나님을 부정한다 2) 몰몬은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 3)몰 몬은 십자가를 숨긴다 4)몰몬은 사 교적인 의식을 행한다 5)몰몬은 반 크리스천이다.

앤드류 목사는 빌리 그래함이나 조엘 오스틴 목사들이 롬니에게 투 표할 것을 촉구한 것은 회개해야하 는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사랑하지 않 기 때문에 몰몬교인 롬니를 지지하

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스테반 앤드류 목사가 복음주의 관측하고 있는 스테반 맨스필드(S. Mansfiled)는 정치 현장에서의 선 택은 항상 결점 투성이지만 그래도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타 락한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면 현재 롬니 후보를 선 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 기한다.

허밍웨이(M. Z. Hemingway)는 루터의 "2왕국 이론"을 말한다. 즉 롬니이건 오바마이건 11월 대통령 으로 당선되는 리더는 세상의 권위

리에서 사리지지 않는 이유는 그가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들처럼 실수도 하는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선택은 지금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펼쳐나갈 정 책들과 정부 구성에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복음주의 진영 역시 몰몬 교인 롬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 수주의자인 롬니가 중요하다고 지 적한다. 결국 2012대선은 진보와 보 수 진영이 펼쳐나갈 정책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이 될 것이다.

크리스천 리더 필수조건은 "영향력"

〈1면에서 계속〉

효율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업무 수행과 대인 관계를 얼마나 조화롭 게 병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역이 나 문화가 달라지면 리더십의 양상 도 바뀌어야 한다. 리더마다 나름대 로 타고난 고유의 리더십 유형이 있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발 휘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리더십 유형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 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어떤 상 황에서는 업무 수행에 역점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는 대인관계에 주력 하는 식이다. 그러나 보통은 2가지 방법을 병행하기 마련이다. 단체의 구성원들은 리더와 사역 상황을 면 밀히 검토해서 그 사역에 가장 적합 한 리더를 세워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크리스천 리더 는 항상 자신이 어떤 리더십의 유형 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진지 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을 변화시키며 속해 있는 단체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인생은 불행 중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시 78편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애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셨고, 밤에는 그 넓고 넓은 광야를 화강암 불로 밝혀 주셔서 동물들의 위협에서 보 호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매일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셨고, 어떤 때는 메추 라기들을 몰아 붙여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조금 어려운 일 이 있어도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사람의 본체는 다 똑같습니 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것보다 더 큰 기적 속에서 살고 있 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보다 훨씬 풍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엄청 나게 부어주셔서 물 쓰듯 쓰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친 다"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구나, 걱정 이 태산이다" 하며 삽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어도 또 불평불만하며 없는 것만 계산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가 건강을 주시 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일할 수 있는 재능, 일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밤에 잠잘 때 아무 의식 없이 잘 잘 수 있도록 호흡을 지켜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셨으며, 무서운 도적과 강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 모든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하 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감사는 바닥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저 없는 거, 부족한 것만 계산하는 이 모습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천국에 갖다 놓아 보아야 첫 날만 감사하고 이튿날부터 불평할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그 넓 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까지 가도록 은혜를 받고도 울상을 하고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렇게 쓸모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 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입니까?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 는 복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궁핍하게 웃지도 못하고 염려 가 운데서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이 30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욕심에 서 떠나지 아니하고..." 욕심이라는 박테리아 하나로 인해서 만족이 없고 불평, 또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달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만 하시고 감사 기 도를 많이 해야 실제로 부자입니다. 감사를 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감사를 해야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예비해 주시 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 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 성도들은 감 사하며 사는 것이 복이요, 특징입니다. 욕심의 종이 된 사람은 아무 리 주어도 부족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감사하면서 인 생을 삽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내 생 애를 책임지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범사 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엘에이 강의 안내

시: 2012년 10월 1일(월)-5일(금)

강의제목: Counseling for Modern Christian Ministers (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수: Dr. Ken Bickel

소: 세계로 비젼교회(담임 조요한목사)

310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연 락 처: 허귀암목사 (usa8291@gmail.com, 전화: 714-308-7308)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한국강의 안내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g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수: Dr. Tom Stallter

소: 경남 하동제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GRACE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_edu, gtskoreanstudies@gmail_com

EMINARY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목양칼럼





볼자노(Bolzano)에서

이태리의 북쪽 국경 도시 볼자노 (Bolzano)를 방문하던 차에 오스트 리아의 인스부룩을 방문했다. 그곳 에서 색다른 음식을 먹어보려는 생 각에서 말이다. 그런데 식당에 들 어가 주문하려니 말이 통하지 않 았다. 오로지 독일말만 하는 웨이

고, 이제 아이들 혼례도 치를 때가

되고 보니... 그동안 가정에 신경 쓰

지 못하셨던 것과 또한 결혼하는 자

녀에게 한 살림 떼내어 주지 못하는

넉넉치못한 형편에 마음이 쓰였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정

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제가 보

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부모님으로

서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임을

생각할 때,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들에게 재산, 가업, 가보 등등을 남

겨주려고 합니다. 가정의 가장이라

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들에

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을 것입

니다. 어떤 부모님 중에는 원하는

만큼 공부는 시켜주지만 나머지는

기대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미리

선언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강 시 켰는데 나온 것을 보니 전혀 아니 었다. 맛도 형편없었고.... 이상하게 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스트 레스가 된다. 국경에서 아주 가까 운 도시인데도 왜 이럴까 하는 생 각에 미치자 이곳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목

회

이곳에서 가까운 이태리 도시 볼 자노는 이태리 땅이면서도 독일어 를 사용하는 곳이다. 사람들의 생 김새도 게르만 혈통임을 알게 되고 친절함과는 거리가 먼 무뚝뚝함과 히틀러가 그렇게 우월한 족속이라 고 칭했던 아리안 족의 희디흰 피 백만 명의 아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부는 냉정함으로 비쳐진다. 사실 볼자노는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당했다. 1차 대전의 패전국이 되어 승자인 그 후 오스트리아는 패전 결과 연합국의 직권에 의해 1918년에 이태리에 넘겨준 지역이다. 이때부 터 오스트리아는 큰 나라에서 하루 아침에 작은 약소국으로 전락되고

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찍이 점령국인 세르비아를 오 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방문했는 데 그만 길을 잘못 들었고, 그 곳 에서 유고의 국수주의자 청년이 쏜 총탄에 황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

말았다. 영토의 분리 원칙은 같은

족속에 대한 우선주의였지만 이곳

어나게 되었다. 이런 기회에 손 좀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오스트리아 는 고압적으로 황태자를 죽인 대 가를 요청했다. 그 때 세르비아는 순순히 따르기로 했으나 오스트리 아는 전쟁을 선포하고 말았다. 이 에 독일은 자동 참전했고 이로 인 한 전쟁이 1차 대전이었고 무려 9

헝가리, 체코와 세르비아가 독립 하여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땅의 일부는 루마니아로, 볼차노 지역 은 이태리에 편입되고 말았다. 사 실 이태리는 큰 공 없이 기회를 잘 잡아 이 땅들을 얻게 되었다. 하기 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 조상 로마인들이 다스렸던 지역이 기도 하겠지만.... 로마는 이 땅 뿐 이 아니라 불란서와 스페인, 그리

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루

마니아와 나누이기 전 유고 연방까

지 점령하였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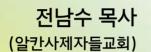
연합국의 제의는 오스트리아는 앞으로 절대 독일과 병합할 수 없 다는 조건이 첨부되었다. 그 결과 는 인구 8백만의 작은 중립국가로 존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에 영화로움을 떨쳤던 합수브르크 왕 가의 영화는 이제 먼먼 얘기가 되 고 말았다. 이런 자존심을 회복하 려고 이곳 출신 히틀러는 독일의 통치자가 되어 구라파를 불바다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 게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만 약이라는 가정을 떠올려 보았다. 만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유고 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용서했다 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1차 대전이란 세계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9백만이라는 엄청 난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을 터! 또 한 패전국이라는 수모와 함께 배상 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중고를 해결

하기 힘들어 히틀러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테고... 그렇게 되었다면 2차 세계대전이 라는 전쟁 및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지구 촌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지엽적인 작은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황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 이 희생을 당해야 했는가! 저들은 지금도 분단국이 되어 이태리에 속 한 채 독일어를 사용하고 오스트리 아의 향토 음식을 먹으며 산다. 분 단된 지 백년이 넘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한 개인이나 국가의 잘못 된 자존심의 여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싶다. 이것이 인류가 기 억하는 백년 전의 참담한 역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1차 대전이라 는 큰 전쟁의 상흔이 볼차노 지역 의 곳곳에 지금도 남아있다. 전쟁 의 야심을 버리라고 말이다.

푸/ 른/ 초/ 장





지난 여름 한국방문길에 50대 아 버지들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 습니다. 그들 중 몇몇 분들에게 공 통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너무 너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전화 를 하면 울어버리실 것 같아서 그저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약 카톡 문자로 '아들아 미안하다. 아 들아 미안하다'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하고서 그분의 형편들을 짐작해보면, 아마 젊으셨을 때는 가 족도 잊어버리고 바쁘게 목회일념 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한숨 돌리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어떤 것입니 까?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이 에서 의 일을 염두에 두고서 야곱에게 행 한 축복의 내용들과 그 열매들을 생 각해보면 딱 한 가지 '신앙의 유산' 만 온전히 남길 수 있어도 나머지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날에 직 한 가지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남 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결혼을 전제로 다시 한 번 더 집을 떠나야 하는 험한 행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야곱에게 육신의 재물은 없었을지 라도 오직 신앙하나 붙들고 아버지

워야 하는 고단한 인생길이어도 상 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꿈결에 하 나님을 만난 그 감격에, 상처에 바 를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기름 한 병 마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돌베 개 제단 앞에 모두 부어버리게 됩니 다. 더 가난한 빈털터리가 된 것입 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원까지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품었 고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길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선 야곱에게는 주 저하거나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빈들광야, 바로 그곳이 말씀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 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야곱의 인생 결론

결과적으로 야곱의 인생의 결론 이 무엇입니까? 빈손 들고 갔던 그 나그네 길에서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처럼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147세의 장수를 누립니다. 자신의 열두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 파가 형성됩니다.

야곱의 모든 축복의 출발점에 아 버지 이삭의 축복기도가 있음을 부 인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의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 믿음을 그 아들 야곱에게 전수하였는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 지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 면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

지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의 잔소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 인 잔소리는 부모의 고유한 특권입

요한 웨슬레와 더불어 열 명이나 되는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요 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대답 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녀는 "아이 들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기를 완 전히 꺾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한 것이 비결입니다"라고 답하였습 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 럼 평생을 기도하면서 자식이 돌아 오기를 기도하는 어머니도 분명 위 대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처럼 돌 아온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 니까? 또한 돌아온 후에 그동안의 방황했던 자식의 '잃어버린 세월' 은 누가 보상합니까? 하나님의 섭 리를 언급하기 전에 부모로서의 최 선의 순종과 결단이 더 중요할 것

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 십시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 할 때 정말 미안해하실 날이 불현 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어를 잊으면 신앙도 잃어 버리게 됩니다. 교회에 아이들을 맡 기십시오. 교회중심으로 가정과 삶 의 일들을 재편하십시오. 교회를 붙 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는 어머 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저 찾 아가서 안기기만 하면 어머니품안 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람과 성숙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 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 문이 항상 열려있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 같은 그런 복 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소망 합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세기 28:1-4, 18-22

속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품은 야곱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육신적으 로 물려준 것이 없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하는 경영능 력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우 물형통의 축복권을 가진 이삭의 재 력이었다면, 많은 것을 줄만한데도 물질의 상속으로 본다면 야곱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무하였습니다. 아 버지 이삭의 재산의 대부분은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부모의 근심이 되 었던, 철저하게 자기 멋에 살아간 에서의 몫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에서에 비해 야곱에게는 오

의 축복기도 하나 마음에 새기고 가 는 그의 나그네 길은 엄청난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품 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소유의 유무와 상 관없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사모하고 품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서막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육신의 소유에 상관없이 비전과 꿈을 발견 하는 복된 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빈들광야라도 상 관이 없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누

모든 것이 갑자기 신기루처럼 한순 간 변화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야 곱은 벧엘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 아 풍천노숙하는 나그네로서의 자 신의 현실과 서원사이에 그 격차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상관치 아 니하고 기둥으로 세운 그 돌이 하나 님의 전이 될 것이며 자신에게 허락 되어진 모든 것에서 십의 일을 드리 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 히 쉽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서원을 맹세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현실의 간극은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꿈없이 잠 들지 않고 꿈없이 깨지 않는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음으로 한 것일 따름입니다. 자식 에게 세상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우 리 자신이 이삭처럼 부모된 자격과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으 로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셔 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

이를 위해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 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 는 굵은 음성으로 자녀를 축복하셔 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 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 가정을 향한 하늘 축복의 문이 열려

해외한인장코회(KPCA) 버지니아 잠로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결손으로 동역하실 전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ㅇ주요사역: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 ㅇ지원자격: 정규 신화대화원을 졸업한 목사로 영어와 한국어 사역이 가능한 분 ㅇ제출서류 :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신앙간중문, 사역비전 및 계획서 최근 설교통영상 혹은 CD 2개 목회자 추천서 2부 (섬기던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포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인터뷰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 통지 합니다.)

○제출기한 : 2012년 9월 30일

○제 출 처 : 버지니아 장로교회 청병위원회

(답당: 서기 백원길 장로, 703-585-6355) Eld, Won Kil Paik

6355 Edsall Rd, Alexandria, VA 22312 ○제출방법: 우편이나 이메일 wonpaik@hotmail.com

○교회주소: 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0 ○교회전화: 703-922-6064

버지니아장로교회 담임목사 민칠기



루이지아나주 슈리포트보죠 한인장로교회(PCUSA)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M Div). 2. 목사 안수후 2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는 분.

저글서류

1,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

3. 목회 계획서

4. 최근 시무한 교회 3개월이내 주보 1매와 설교 CD 2 회분

天 一 交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80 Dudley Ln

Bossier City, LA 71112 혹은 2 (Electronically) sbpc990@gmail.com

연락처

유호석장로 (318~349~2347) 박형구장로 (318~268~4228)

제출기한: 2012년 10월 6일

슈리포트보죠 한인장로교회

SHREVEPORT-BOSSIER KOREAN PREBYTERIAN CHURCH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지난 7월23일부터 27일까지 시카 고 휫튼대학 빌리그래함센터에서 있었던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셋 째 날 주제 강연을 맡으신 김남수 목 사님의 '4/14 Windows운동과 선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 먼저 강의내용의 일부 를 소개하겠습니다.

루이스 부시 목사와 김남수 목사 님께서 주창하는 4/14Windows운 동과 새로운 선교패러다임은 어린 이 선교에 그 근거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예 민한 지구촌의 4세로부터 14세까지 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교 육선교운동과 다양한 문화, 즉 뮤지 컬, 축구, 태권도, 영어교육 등을 매 체로 하는 문화 및 교육사역을 말하 는 것입니다. 선교패러다임의 전환 에 어린이 선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 습니다.

첫째로 복음전도의 효율성 면에 서 30세 이상의 성인에게 복음을 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불 과 5% 정도 밖에 되지 않고, 15세에 서 30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에게 복 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 람이 10% 정도가 되고, 4세에서 14 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 하면 8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 는데 사용되는 경비가 가장 저렴하 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가 가장 오래 살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과 영

正号型指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4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에 의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그들 은 쉽게 예수님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던 어린이들이 장년으로 성장하기까지 한 사람도 실족 당하지 않는다고 장 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린이들에 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 나 전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책임을 다 했다고 하기에는 그들이 살아갈 영적전쟁의 현장은 참으로 험난하 기 때문에 보다 더 전략적인 신앙교 육과 제자훈련 그리고 신앙적 체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린이선교가 가 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다 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빈 곤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데 는 성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문화적으로 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교 육선교와 문화선교에 결코 적은 비

취급하면 그 교육은 오래가지 못합 니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Method로 교육과 문화를 접목 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이 누리고 살 고 있는 집이나 학교에서의 시설이 나 환경보다 교회의 시설과 환경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이민교회의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 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과 모든 시설들은 아주 잘 갖추어져 있 는데 반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 는 처소와 활동하는 공간들은 협소 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겨우 공간 (방)만 있을 뿐 아이들의 교육과 활 동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 교보다 집보다 못한 시설과 환경을 과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동질성을 가 진 한국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재미 도 있고 부모의 손에 이끌리어 교회 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 이들이 자라면 우리 한인교회를 떠 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것입 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같 은 교회를 섬기면서 부모가 세워 놓 은 교회를 승계하지 못하고 떠나야 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 디로 가는가? 미국교회로? 한인2세 교회로? 아닙니다. 그들은 갈 길을

어린이선교 전략적 신앙교육과 제자훈련 필요 지속적 예배체험과 신앙체험 계속돼야

향 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같은 타종 교로부터 어린 영혼들을 보호해야 할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선교의 대 상이 바로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실 로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전도의 효율성과 투자의 가 치 그리고 다른 종교나 타락한 문 화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대상 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은 말 할 나위 없이 당연하고 타당한 사실 입니다. 그리고 교육선교와 문화선 교를 통해 어린이 선교를 전개해가 는 것 또한 가장 적절한 처방임에 틀 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 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가울 뿐입니 다. 여기에서 저는 저의 무속한 제안 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복음전도의 효율성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쉽게 영접하는 어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과 연 얼마 동안 신앙을 간직할 것인가 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 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예수 님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을 둘러싸 고 있는 오늘날의 타락한 문화와 다 원주의적인 종교의 혼란함과 금권

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문화적으로 개방된 환경 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 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 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 부모세대는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유혹과 말초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뚫 고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 니다. 만일 어린이가 교회학교나 또 는 어떤 Summer Retreat 같은 프로 그램을 통해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 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자극이나 문화적 충동에 의한 또 다른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 아이가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직 신앙만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 린이가 예수님을 받아 드리는 정도 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Follow up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그 리스도인의 삶의 훈련과 지속적인 예배체험과 신앙체험이 계속되어져 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이들이 장성 하기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신 앙 안에서 교회와 선교를 지켜갈 수

용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바이올 린을 배우게 하려고 계획한다면 맨 먼저 악기를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취미를 가지고 열심 히 잘 할지, 아니면 별로 취미가 없 어 잘 안 할지를 몰라 싼 악기를 구 입해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한다면 과연 아이가 바이올린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데 그 아이는 얼마가 지 않아 반드시 바이올린 배우는 것 을 중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시는 바이올린을 좋아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아직 음도 정확하게 내지 못 하는 아이에게 악기도 좋지 않아 음 질(톤)도 좋지 않으면 아이가 바이 올린을 연습하는 동안 듣기 싫은 소 리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것 이고 갈수록 음악과 거리가 더 멀어 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좋은 악기를 아이에게 주었다면 자신이 좀 잘 못해도 악기의 아름다운 음질 (톤)로 인하여 악기를 좋아하게 되 고 연습도 더 하게 되고 점점 더 음 악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 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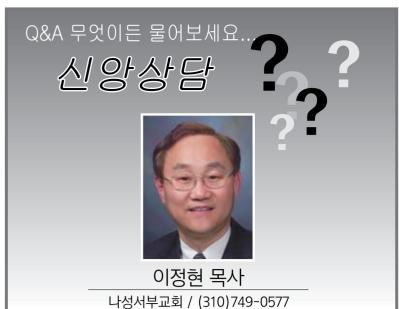
아이들의 교육을 쉽게 아주 싸게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교회와 단 절되고 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 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장성하여 결 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참으 로 불행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대체 로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사 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 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후 그들의 후손들 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성 경은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기 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세 대가 피와 땀으로 세우고 섬겨온 교 회와 선교가 부모세대에서 끊어지 고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불행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이 심각성을 통감 하고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과감한 개혁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호에는 교육선교에 대한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하고 자 합니다.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E-Mail: Lakwpc0316@yahoo.co.kr

Q: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몇 달 후에 있게 됩니다. 국민의 지도 자 선출을 위해 기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교회 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지도자와 국민들의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하버시티에서 최 집사

A: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정치지도자들과 교회의 영적지 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치리하며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롬 13:3-4절을 보면 정치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목 사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아니라 관리와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 님의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대선에는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소 통과 국정운영능력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박근혜 씨는 국정 능력으 로는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고 안철수 씨는 소통과 도덕성으로는 가 장 우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의와 진실의 사람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을 쉽게 욕하고 험담을 잘합니다. 우 리는 욕하기에 앞서 그들의 연약한 면을 위해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잡으면 잘할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 않 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정치지도자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바로 목회하도록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 는 특별한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총회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 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WCC 개최 철회를 위한 기독교인 100만인 서 명운동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WCC 부산 개최에 한 국의 대형교회, 유명 목회자들이 대회 개최를 위해 현재 앞장을 서

회개와 순종으로 영적 부흥 이뤄야

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WCC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WCC운 동은 원래 처음은 교회들이 다 연합하고 하나 되자는 좋은 뜻에서 시 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 교들도 다 포용하여 세계 종교통합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위 "종교 다원주의 "를 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 다고 주장하기보다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가톨릭에도 다른 이방종교 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연합 하자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교회연합을 가장하여 기독교를 타락시키 려드는 사탄의 교묘한 장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미나 유럽 호주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영적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 습니다. 우리의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로 나가 는 WCC운동을 철저히 반대하고 배격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치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 다.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영 적 권위를 존경하며 조용히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 회개와 순종"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의 바람이 오늘 이라도 우리 가운데 불어올 줄 믿습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백 타이(White Tai)



백 타이 족은 라오 스 북동 지 역 산악지 대의 좁은 계곡에 거 주하는 나 름대로 세 력이 있는

종족이다. 백 타이족과 이웃인 흑 타이족의 이름은 각각 종족 여성들이 입는 상의의 색에 따른 것이다.

수세기전 백 타이족은 중국에 살

고 있었다. 중국인들의 끊임없는 압력으로 인해 점차로 남쪽으로 이 주하여 결국 홍강(Red River)과 흑 강(Black River)을 따라 정착하게 됐다. 이들이 정착한 라오스는 내 륙국가로 생존을 위해서 다른 국 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다. 라오스는 침략, 내전의 세월 에 이어 프랑스 식민통치를 받았 다. 독립 후 라오스는 이웃국가들 과 또 러시아와 미국과 같은 먼 거 리의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됐다. 그러나 해안을 끼고 있는 국 토가 없어 주위국가들에 여전히 의 존돼 있다.

백 타이 족의 언어는 성조어인 타이 카오(Tai Kao)이며, 이들은 좀 더 큰 문화-언어 집단인 타이계 종족에 속한다. 이 타이계 종족에 는 라오스인, 샨족 등이 포함된다.

압

삶의 모습

백 타이족은 매우 예의 바르고 공손하며 손님대접을 잘한다. 어 른들을 공경하며 의지가 강한 인간 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친다. 직 업, 부, 거주지역 등이 그 뒤를 따 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농촌지역의 농부는 장인, 상 인, 시 공무원보다 낮은 사회적 지 위를 가지며 성직자들은 다른 집단 으로 분리된다.

백 타이 사회의 핵심은 가정이 다.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아내의 가 족과 함께 살 수 있다. 아버지가 가

정의 대표로 인식되나, 백 타이족 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성에 따 른 일의 차이는 거의 없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땅을 경작하고 물고기 를 잡고 요리하고 아기를 돌보고 집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한다.

백 타이족은 작은 자치 촌락에 서 생활하며 보통 한 계곡에 한 촌 락이 생활한다. 각 촌락들은 "차오 무옹(chao muong)"이나 평민들의 세금을 받는 군주가 통치한다. 백 타이족이 라오스국민들이기는 하 지만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다. 대부분의 백 타이족은 작은 계곡의 농장에서 생활하며, 언덕에 계단식 논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대어 농 사를 짓는다. 또한 일부는 아직도 화전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들 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양귀 비를 키우기도 한다. 새로운 길이 닦임으로 농촌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쉬워졌다. 몇몇 시장지역에는

중국인 가게들이 있으며 중국인 상 인들이 마을들을 방문해서 물건을 사기도 한다.

신앙

백 타이족 절반 이상이 토속적 "정령숭배"와 불교가 혼합된 종 교의식을 행한다. 이들은 다양한 영혼과 대상들을 숭배하며, 인간 이 "다중영혼(multiple personal souls)"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영혼을 다시 부르는(recalling) 의 식을 행한다. 이것을 통해 개인 존 재가 강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다. 백 타이족은 죽은 자의 영혼, 자 연세계의 영혼, 정치세계의 영혼, 다양한 지역의 영혼 등이 존재한다 고 믿는다.

백 타이족의 38%가 불교도들이 다. 이들은 고통을 없애고 완벽한 평화와 열반을 얻고자 선행을 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절에 시 주하고 법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 을 통해 선행을 행한다고 한다. 전 통적으로 각 촌락에는 그 촌락의 불교 사원이나 수도원이 있다. 보 통 젊은 남자들이 3개월 동안 이 마 을수도원에서 불교를 공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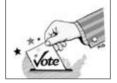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라오스의 백 타이족을 위 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하나 뿐 으로 크리스천임을 고백하는 사 람들은 2%뿐이다. 성경의 일부만 이 타이 카오(Tai Kao)어로 번역돼 있고, 지금까지 예수영화나 기독교 방송매체 중에 타이 카오어로 제공 되는 것은 없다. 백 타이족은 과거 에 있던 폭력과 전쟁으로 깊이 상 처받았다. 이들은 상처치유와 새로 운 영적 소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미대통령 선거 여성기독인이 큰 영향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여성 크리스천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많은 유권자 수를 보유한데다 투표 의사도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바나리서치는 현지 성인남녀 1,00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교회 출석 여부와 성별로 나눈 4개 유 권자층 가운데 '교회 다니는 여성'이 가장 적극적인 투 표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교회출석 여성'의 79%가 " 꼭 투표하겠다"고 밝혀 '교회출석 남성'(76%), '비교회 출석 남성'(60%), '비교회출석 여성'(52%)을 앞섰다.

유권자 비중도 교회출석 여성이 30%로 가장 컸다. 비교회출석 남성(28%), 비교회출석 여성(22%), 교회 출석 남성(20%)이 뒤를 이었다. 여성크리스천은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47%)보다는 공화당 밋 롬니 후보 (53%) 지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데다 적극적 지지도 측면에선 오바마 (32%)가 롬니(23%)를 앞서고 있어 여성 크리스천 상 당수는 부동층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 크리스 천은 58%가 롬니를 지지했다.

에이미 블랙 휘턴대 교수는 "전통적으로 교회 출석 자는 공화당, 여성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데 여성 크리스천은 이 두 성향이 뒤섞여 부동층의 모습을 보이 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크리스천이 관심 갖는 대선이슈는 의료서비스 (75%), 세금(62%), 고용정책(58%), 교육(51%)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키너만 바나그룹 대표는 "미국 경 제가 어려운 탓에 동성결혼과 낙태 이슈가 관심순위에 서 밀렸다"고 말했다.

2011년 성경보급 3천만 부 처음 넘어

[CBS]2011년 한 해 동 안 전 세계에 보급된 성경 이 처음으로 3천만 부를 넘 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United Bible Societies,

UBS)가 발표한 2011 성서반포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Internet News

해 전 세계 146개 성서공회를 통해 보급된 성경은 모두 3천2백10만부 가량으로, 2010년 2천8백90만부에 비해 1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경보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아프 리카 지역으로 29.2%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아메리 카 지역으로, 19.9%, 유럽 중동 지역도 2.7% 증가했 으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4.2% 소폭 감소하는 현상 을 보였다.

이 같은 성경 반포 부수는 신구약을 포함한 수치이 며, 신약의 반포 부수는 2010년과 거의 변함이 없이 980만부였다. 성서공회가 보급한 단편과 전도지 부수 는 3억3천9백만 부로 3.7% 증가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돼 반포된 성경 언 어는 역설적이게도 아랍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 랍어를 포함해 중국어와 영어, 불어, 독일어, 포르투칼 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등 9개 언어가 전 체 번역성경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종이형태의 성경보급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오 디오성서 등 온라인을 통한 성서 보급도 점차 늘고 있 다. 인터넷과 아이티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난 해 영국 성서공회는 34만5천부, 인도성서공회도 4만 여부를 종 이 성경이 아닌 온라인 성경으로 보급했다.

오바마 지지율 대체로 롬니보다 앞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지난 8월 27-30일) 또는 직후 시행된 주요 여론조사 지지율 에서도 대체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밋 롬니 공화당 후보에게 앞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전대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 되면 여론 지지율이 평균 5-6%포인트 올라간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롬니 연설 등 전대 행사가 유권자에게 깊 은 인상을 주지 못하면서 '컨벤션(전대) 효과'가 단명한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갤럽이 1일 공개한 주간 평균 후보지지도에서 오바 마가 47%로 롬니보다 1%포인트 높았다. 지난 60일간 평균 지지율이 동률(46%)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비록 오차범위(±2%포인트)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전대를 계기로 반전을 노리던 롬니가 오바마에게 '되치기' 당

뉴욕빌라뗍비아장로교회

리빙스톤교회

NJ (776)061-2171, Paz (740)061-3631 S7-67 104 St., Flanking, NY 11568

민즈장로교회

단입목사: 김혜원

주합1부에서: 오픈 8:00 부합의에서: 오픈 11:50 부합의에서: 오픈 2:00(함아) 부모에는: 오픈 8:30 부터지도: 오픈 8:00(함·원) 부터지도: 오픈 8:11:00

단입목사; 유상열

주위에는 오픈 10:50 주입에고 오픈 10:50 유민선생활동작: 오픈 13:30 주입에 10:50 오픈 12:30 주입에 10:50 오픈 12:30 주입에 10:50 오픈 13:30

답입목사: 박규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이터-입소스가 1일 밝힌 지지율(오차범위 ±3% 포인트)에서도 오바마가 44%로 롬니를 1%포인트 차 로 따돌렸다. 롬니는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오바마에게 4%포인트 뒤지다가 지난달 30일에는 2%포인트, 31일 에는 1%포인트 역전시켜 '전대 효과' 덕을 봤으나 사 흘 만에 재역전 당했다. 중립적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 얼클리어폴리틱스(RCP)의 지지도 역시 오바마 46.4%, 롬니 46.3%로 오바마 우세로 나왔다. 반면 보수 성향의 라스무센리포츠가 2일 내놓은 지지도(오차범위 ±3% 포인트)에서는 롬니가 48%로 오바마보다 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롬니 우세 폭은 하루 전보다 1% 포인트 더 벌어졌다.

지난 8월 31일 허리케인 '아이작(ISAAC)'으로 피해 를 본 루이지애나주(州)를 전격 방문한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왼쪽, AP=연합뉴스)공화 전대 전과 비교 하면 롬니가 오바마에게 2%포인트 뒤졌기 때문에 4% 포인트 역전은 전대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스무센은 플로리다,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11개 경합주(州)에 대한 후보지지도에서도 롬니가 46%로 오바마보다 2%포인트 높다고 밝혔다. 이들 11개 주의 대통령선거인 수는 146명이다. 현재 오바마나 롬니 누 구도 당선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전체 538명)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USA투데이 등 유력지들은 주별 판세를 기준으로 2일 현재 오바마 201-230명, 롬니 191-206명의 선거인을 확보하는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립적 선거조사 온라인매체 '파 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를 운영하는 선거분 석가 네이트 실버는 "전대 이후 롬니의 지지율 상승폭 을 정확히 알려면 하루 이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앞 의 여론조사결과는 롬니가 (유권자에게) 감흥을 주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지난달 25일 이후 각종 자료를 넣어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했더니 2일 대선 투표가 치러졌을 때 선거인 수는 오바마 295.5명, 롬니 242.5명 이었다. 오는 11월 6일 진짜 투표 때는 오바마 305.5명, 롬니 232.5명으로 오바마 압승이 예상됐다. 오늘 투표 를 하나 11월 투표를 하나 오바마의 승률은 70%를 넘 었지만 롬니는 30%가 채 안 됐다. 실버는 그러나 "롬니 지지율 상승세가 미약하다면 그 부담은 오바마에게로 돌아온다. 만일 (3-6일 열리는) 민주당 전대 이후 오바 마가 지지율 탄력을 받지 못하면 반대로 롬니가 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순복음안띡옥교학

% THE SEC OF PROPERTY AND ASSESSMENT TO SEC. NO. 192 St. Pagebong, NY 11358

베다니교회

#25: 30 (873)694-3680, EM21(873)694-36 #25: 401 Alpa Sel, Mayes, NJ (87470 EM21: 430 Mars St., Part Lee, NJ 67434

한마음침적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수보여해: 오후 8:30 유용(건사)에대: 오후 8:30 사이에대: 오픈 5:30(출-표

답입목사: 장동환

주인(무례): 요천 7:30 주입(구례): 요천 8:30 주입(무례): 요천 11:30 주입(무례): 요추 1:30 수요대대: 요추 8:00

중요기도표: 오후 6:00 사학기도표: 오후 6:00

답임목사: 박바이윤

주철단회에: 오전 11:00 주철업이에에: 오전 8:30 수요한법이에: 오후 5:30 공요점을에에: 오후 8:30

신성모독 조작 파키스탄 이슬람 성직자 체포

[미션라이프]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 계 10대 소녀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로 이슬람 성직 자가 체포됐다고 2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의 증거를 처음 제출한 이슬 람 성직자 칼리드 치스티는 불에 탄 종이가 들어있는 쇼핑백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이 쓰여진 종이 몇 장을 넣어 소녀를 유죄로 만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성직자는 1일 체포됐다.

기독교계 10대 소녀인 림샤 마시흐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을 포함한 문서를 태워 신성모독 관련법을 어 긴 혐의로 구속됐다. 마시흐는 3일 보석으로 풀려날지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소녀가 아직 어린데다 정신 지 체가 있어 파키스탄 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파키스탄서 미국인 겨냥 테러로 4명 사망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에서 3일 오전 미국 영사관 차량을 겨냥한 자 살폭탄 테러가 발



생했다. 이번 테러로 미국 외교관 2명을 포함, 4명이 사 망했다는 파키스탄 측의 발표와 달리 미국 측은 자국 외교관의 사망을 부인하고 나서 혼선이 일고 있다.

현지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자폭테러는 출근 시간대에 페샤와르 시 북서부에 자리한 미 영사관 직원 거주단지 부근에서 일어났다. 이 테러로 차량 여러 대 가 파손되고 주변의 주택 4채가 일부 부서졌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인이 최 대 110kg의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몰고 미 영사관 차량 을 향해 돌진했다면서 사망자 4명 외에 최대 19명이 부 상했다고 밝혔다.

미안 이프티카르 후사인 키베르 파크툰크와 주 공보 장관은 사망자 중에는 미국인 2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 했다. 그러나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번 테러로 미 영사관 차량 한 대가 파손되고 4명이 부 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 4명의 부상자는 영사관 직원들로 2명은 미국인, 다른 2명은 파키스탄 인이라면서 현재 여타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원장로교회

뉴욕초대교회

Tel.(716)010-9021, Fax (716)007-0270 71-17 Repeared Ave, Jackson Heights, MY 11372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미주크리스천신뿐 짜 함께받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답합목사: 황영진

조립1부대표: 오전 8:45 주립2부대표: 오전 1:00 영어에대: 오후 2:00 수요세시설전: 오후 3:00 세계기보호: 오픈 5:00 급요한다면대: 오후 2:45

답입목사: 김승희

조명(부의왕: 모인 8:30 취임부의왕: 모인 10:30 취임부의왕: 모든 1:00 취임부의왕: 모두 5:30 원왕/병의: 모두 6:30 체역/병의: 모든 6:00(월~전)

답입목사; 빡때옆

(부 기도등에자보임: 오픈 9:00 2부 분보기되도임: 오픈 9:30 3부 마리: 요전 10:45 EM 영어대리: 오픈 2:30 수오라리: 오촌 8:00

세계로뭳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안내



주상에에1부: 모건 8:00 주상에비2부: 요전 11:00 주성산강에에: 모두 1:30 수요시에에대: 오후 8:30 Tel (19644-225), DYESSTO-225, For DYESSTO-2603 45-75 Parents Bird, Floriday, NY 15355 www.nycoffman.com, NY 15355

뉴욕효신장포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TAL (778)763-6756, JSZS, Fax (758)661-3111 42-15 156th St. Flatting, NY 11356



담임목사: 여규본 주장해야: 오루 12:30 서적기되었-최: 오픈 6:00 연역은보기등: 모루 5:00





뉴저지성도교회 답입목사: 허상회 주말에요: 오전 11:00 환당에요: 모두 2:00 수요에요: 오후 5:00 시작가도 해: 오픈 6:00(박-교) 금요2 문화: 오후 8:0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답입목사: 송생기

조됩1부에제: 보건 #100 추월3부에제: 모든 11:00 수월3부에제: 모두 2:00 수요등관공부: 오루 8:00 공료에: 모두 8:00 서백기도회: 요즘 8:45

답입목사: 이원호 주말에야: 모유 1:00 엄마에야: 요휴 2:00 목요한업대학: 오후 3:15 바일사학에야: 오찬 8:00

Tel (732)310-0028(318), Fax (732)537-0742 445 Old Poet Road Editor, NJ 68817



주십년이라: 오랜 (1:00 참당하다: 오후 2:00 수요하다: 오후 5:00 사이기도의: 오랜 5:60

Tel 2277-5450, Fez. 2203-9363 us Josephn Piza, 251 Cambuci 2, Paulo Cap 01629-910

브라질 한인교회 단엄복사: 판봉원 주입: 무에비: 요전 9:00 수입2부에비: 오전 81:00 추입3부에비: 오후 1:50 보더에서: 오후 7:00 수요에비: 요후 8:00 세비에서: 요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5161 R, Librains Abnes 16 Liberciade SP CEP 01566

Tel. (716)000-0040, Fax (716)000-7789 143-17 Franklin Ave., Flanklin, NY 11900 www.kapoq.org 50,776,672-1150 50-00 23:0 Ave, East Dichard, NY 11363 www.queench.com

브라질 새소방교회 담임복사: 박재호

뉴욕재사람교회

Tel.(718)481-28100Fee: \$48), (917)973-3411 40-04 102 St. Flumber, HT 11909

등아일랜드성결교회

THE PERSON AND MACHINE AND THE PERSON AND THE PERSO

뒨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답입목사: 김석형

주입대체: 오전 11:90 참이대체: 호전 9:45 수요안참이제: 오루 8:30 관요기도함: 오루 8:30 서제기도화: 오랜 8:30

답입목사: 이규설

주장(부대해: 보건 8:00 추정(2부대해: 보건 11:00 정본이라해: 보추 1:30 MCF경어: 보후 1:30

주입1학에의 2년 8:00 수입2학에의 2년 8:30 주입2학에의 2년 10:30 주입4학에 2후 2:00 주입2학에의 2후 5:00

THE ISSUES AND SERVE THAN THE SANTA PITA, 215-PARE-BAD PAULD-39-BR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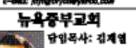
Tel (SNI)277-1903, Cell (S17)922-0500 70 School St, Sher Core, NY 11842 Snell respektionations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복사; 최광현 무접1안에다 요천 9.20 무접2단에다 요천 11:30 무접3단에다 요추 1:30 무접거리에만 요추 3:30 무섭거리에만 요추 3:30 무섭거리에 무섭 12:30

THISENIG-EST-USE AV. CARABOBO 1253, CAP.FED., 8.8., A.8., ARRE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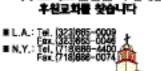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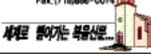






Tel. (718)659-8359, Fer. (718)856-8433 69-38 47th Ave., Woodwide, NY 11377 미주크리스천신뿐 과 업계할







Tel & Fax,[682]555-7626, [682]341-0559 Santiago Curros - 3 Caelile 325 Chile

단일복사: 왕익상 주일으전이라 : 요한 11:00 주일자식이라 : 과국 7:00 수요기도록: 저녁 6:00 754등보기도함: 여행 7:40 하 호 등 교통부터로: 오전 3:30(주말)



柳星 劉化 碧堤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반은 목사 지근대에산학대학 학장 주입1부에바: 오전 8:00 주입2부에바: 오전 76:00 주입3부에바: 오후 8:00 (1,2,3,부 스테니에 걸라)

Tel. (696)21-676-896 E-mail: Nachrit Mannack net Carventes NO, 1901, Atanakon-PARAGUAY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

다음의 미국의 대권에는 영적으 로 준비된 복음적인 정치 지도자가 아무도 없어 기독교인들은 너무 실 망스럽기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사회는 동 성연애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란하 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 최근에 는 낙태나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은 인권(Human right) 차원으로 이해 하며 용납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 니다.

최근 2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주 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 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 현재 7개주가 동성결혼을 합법 화 하였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동 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2000년 네델란드를 비롯하여 9개 국에 이릅니다. 세상이 빠르게 말 세적인 현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 낍니다.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방식을 선택할 자유 를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 다른 사 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남 의 사생활을 반대하는가? 시대에 따라 문화와 가치관이 바뀌는데 결 혼에 대한 관념도 바뀔 수 있는 것 이 아닌가? 라고 상대적인 가치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보면 옳고 그름을 판 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

로 분류가 됩니다. 그 첫째가 우상 숭배(롬1:23)입니다. 두 번째가 도 덕적 타락인데 그 극치가 바로 동 성애입니다(롬1:26-27). 세 번째 가 인간성 상실(롬1:28-31)입니

니다. 소위 인권(Human Right)이 라는 차원에서 용납해야 한다는 말 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동성연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 다고 말합니다(고전6:9-10).

미국이 하나님과 성경을 반 (Against)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 가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동성 애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 게 망했습니까? 불과 유황이 하늘 에서 쏟아지면서 망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다가는 미래가 심히 어둡습 니다. 세계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 은 상실될 것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장 담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 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올 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삼하23:2-4절의 말씀과 같이 통 치자는 정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 다. 우리는 이 미국이 다시 성경으 로 돌아가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합 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나 라와 개인은 잘되지만 그 반대인 고 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보스턴으로 이주해 온지 16년 만 에 세워진 사립대학이 하버드 대학 입니다. 영국에서 뉴잉글랜드로 이 주해온 청교도들이 상륙하면서 설 립한 이 하버드 대학은 교문에 새 겨진 글귀와 같이 "학문을 발전시 켜 자자손손 영원히 남겨주어 문맹 인 목사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명해지기 위해서 학교 로 와서 공부하고 원래는 훌륭한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 교였습니다. 하버드뿐 아니라 예 일, 프린스턴, 펜실베이니아 컬럼 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등의 오늘 날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거의 대부 분이 고전연구와 목사 양성을 목적 으로 학교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 들의 교육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교양인으로 만들 고 종교를 지키고 계승 발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거의 90%를 차 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불기 시작한 계몽주의와 인문주의의 발 달로 인해 대학교육이 실용주의와 인본주의 교육으로 발전하여 기술

염되지 않기 위해 교회들마다 적극 적으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야 합 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공 립학교에 맡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통해 성경 적인 도덕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 것이야말로 동성애 천국으로 변해 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교회는 이 시 대를 바로 평가하고 말씀으로 강력 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 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이 비성 경적인 인본주의 사상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인본주의(Humanism)

현대 서양사회는 14세기에 시작 된 문예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 습니다. 문예부흥운동의 가장 중요 한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희랍 의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한 "인간 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 인본주 의 사상을 잘 대변합니다. 즉 윤리 나 가치의 기준은 인간이 결정한다 는 말입니다.

그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계몽주 의(Enlightenment)는 인간이 신의 개념에서 자유해져야 인간의 이성 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고 인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 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참된 빛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 트는 신은 이성으로 증명되거나 알 수 없으며 윤리적 기준을 위해서만 신의 선악기준이 도움이 된다고 말 함으로서 종교는 반(反)이성적이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 이 이성을 제대로 사용만 할 수 있 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 주의는 영어로 Enlightenment(빛 을 비춤)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밝아질 것이라 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나침반교회

Tel (502)051-5051, (F)/502/051-5056 1200 W. Lambert Rd., Gree, CA 82821 ambert & Parettel / www.nachlebon.co

드 림 교 회

Tul (020)703-6000, 6200 Fez (020)70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iona, CA 01100

브리지교회

원서크리스천교회

🌃 담임목사 : 장세정

주입1부판당에록: 요간 0:00 주입장부 및 해 화: 요만(1:15 주입장아에록: 요부(:30

단인목사 : 엄규서

주합(부대학 오건 8:30 수업가에와 오건 오선(영어) 수업가에와 요전 11:30년원 가입사에 오구 2대(구국인) 사이기도의 오건 8:30(유-대) 주 및 학교 오전 11:30 모모돌등에에서: 오후 8:30

땀임목사 : 면정염

주험 (부리바: 요한 8:00 주업 2보이바: 요한 11:00 100 200 급 등요점: 요한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민하고: 요한 11:00

담임목사 : 이성현

주십 1부부학: 2전 8:30 수입 2부하다: 2전 11:30 명이 1부부학: 2전 9:30 명이 2부부학: 2전 9:30 로 온이 하다: 3후 1:50 수도한점이다: 2후 7:30 부탁도 2학 30점 31 8:30표)

낙태, 동성애, 동성결혼 등 문제를 인권차원서 이해 성경에서는 도덕적 타락, 인간성 상실의 죄로 이해

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 을 정할 수 있고 다수가 원하는 것 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인본 주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이 문 제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가? 낙태, 동성연애 문제는 성경이 절대적으 로 금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 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8-31절에는 이 방인의 죄가 나오는데 크게 3가지

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 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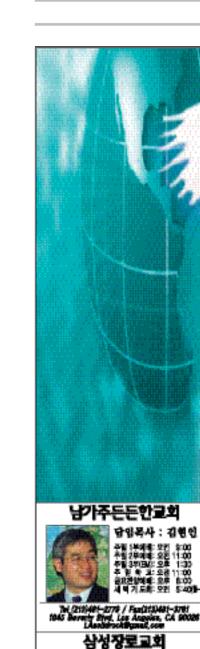
동성애는 일종의 성적인 변태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나 동성결 혼은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죄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세 번 째의 죄 즉 도덕적 타락과 인간성 상실에 속하는 죄입니다. 개와 같 은 짐승도 같은 동성끼리는 성교를 하거나 동성애를 결코 하지 않습니 다. 그러나 존귀한 인간이 이런 동 성애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 기를 포기한 짐승이하의 짓인 것입

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만다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옛날의 영광을 뒤로 한 채 경제도 추락하고 도덕관과 가치관이 하락하여 점점 세계적인 리더십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진화론, 낙태, 동성애, 동성결혼 등으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나 라가 아닌 인본주의의 나라로 이 상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러나 교회와 기독교인은 이 시점에 서 걱정만 하고 수수방관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죄라 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들을 만 드는 학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시점에서 무 엇을 하여야 하는가? 저는 우선 3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1)미국이 하나님과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2)올바른 신 앙관을 가진 대통령과 정치인을 선 출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야 하며 3)자녀들을 진화론과 동성 애 교육 등으로 도덕관,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오늘, 미국공 립학교의 비성경적인 교육에서 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열린뿐교회

THE STREET BOOK OF CHARGE - 1911

디용장로교회

Tel. (210)710-2244, Fex. (310)710-2220 1041) S. Figueros St., Gedero CA 20240

메멜한인교회

얼바인침레교회

men, irvinacheren, con Tei (NeSiNET-9425 / Fex (NeSiNET-9472 Stot Weinet Ave., irvina, CA 82804

창대교회

남임목사 : 박현성

답입목사 : 괜영국

담임목사 : 손인식

주입에대 1박: 오픈 7:20 주입에대 2박: 오픈 8:30 주입에대 2박: 오픈 8:30 주입에대 4박: 오픈 1:00(설년 등 전세일(설년)

당임목사 : 한종수



감사한인교회 답일목사 : 김영길

THE THE STREET COSTS, FRANCISCO COSTS COST

남가주리디머교회

답입복사 : 김요성

200 perila 002 Tel (200)215-0023, Fax (200)077-1183 1038 S, Western Ave, L.A., CA 20018

미주양곡교회

담임복사 : 지용해 주합 1부에에 요한 8:30 주합 2부에에 요한 11:30 주합보육한(3대의 보육 1:30 수요대의 요주 7:00

Tel. (213)360-9377, 8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9

세계소망교회

답임목사 : 오세훈

주십 1부에게 : 오건 6:30 수십 2구에게 : 오건 11:00 추십 2구에게 : 오건 11:00 추십 2구에는 오픈 7:30 근오에는 오픈 7:30 시작에는 오전 6:30 (N-M)

Tel STETTAS-STENIONS, 41 WEST RESS - 680 EDA W. Venice Blod, L.L., CA ROUTS

온혜한인교회 당임목사 : 한기홍 주입 부에서: 요한 7:30 주입구에서: 요한 #30 주입구에서: 요한 #1:30 주입구에서: 요한 2:00 운요합합의: 오후 #1:00

땀임목사 : 신원규

담임목사 : 김영변

주점 1부에에 : 오건 0 100 수업 2부에서 : 오건 11 100 201 1부에서 : 오건 11 100 201 1부에서 : 오건 11 100 건강하네네 : 오건 11 100 선강하네네 : 오픈 11 100 세계기도하: 오건 5 10(함,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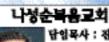
men, settavagohardi, org Tar (56) 666-6665, Faz (562) 664-6646 501 S. Lidako St. La Fishes CA 90631

세계비전 교회

Tel. (714) 440 - 4200, Par. (714) 440 - 4207 1545 W. Veinnala Dr., Faborton, CA 22000

인랜<u>드교</u>회 단명목사 : 박신월

Tel (908)622-2324, Fax (908)622-1481 1181 M. Gine Ares, Proposa, CA 91793





No. (323) 913-4696, Fee, (323) 913-4696 1750 N. Estpenson St. L.A., CA 9002

남가주사랑의교회 답협목사 : 노창수

Tel (114)772-7777, Pax (114)772-0777 1111 N. Brookburd St. Avakets, CA 93801

미주 쨍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 등 1부: 오건 8:30 (39(3)부: 오건 6:45 3강: 요한 11:16 (청년부)4부: 오후 1:45 세탁/교육 교): 오전 6:30

THE STREET PT. LOS ANGELS, CA 2000A 안디옥장로교회

단입목사 : 지윤성

arms, leaps, org 2720 Montropolare, Montrope, CA 51020 주님의영광교회

답입복사 : 신승훈 주월 1부 대학: 오전 8:00 주월 2부 대학: 오전 10:30 주월 3부 대학: 오전 1:00 수요/국요하학: 오픈 7:30 서대학학: 요전 8:00(출-급)

Tel (200749-4006, Fee(200749-6704 1807 S, Grand Ave, L.A., CA 90076 pare, poje, pog

답입목사 : 이춘준





1721 N. Brisidney Lau Augules, CA 80021 Tel: 523-227-1400 | Paz: 523-227-07/8

등문교회 답합목사 : 최태우 주립(부위에: 모인 \$100 주립(부위에: 요한 11:00 임아메래: 오전 11:00 사이기도로: 요한 5:30

왕오환영에서: 오후 7:45 Tel (211)469-0625, Faz (211)463-0075 10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밴무버빌라멤비아교회



Nr. (806)584-5780, Fax (806)584-5717 3136 135nd St., Survey, S.C. Canada, VSV 6PS

오렌지카운티자입장로교회 땀염목사 : 엄영편 주입 1부세에: 오픈 6:15 수실 2만에와: 오픈 10:00 유실 2부세에: 요란 11:45 및 이 네 네 오픈 10:00 수 및 에 네: 오픈 7:30 세대로 5% 20는 5:00-41

Tel.(714)831-2025 / Fez.(714)375-3057 8500 Bolse Ave., Westerster, CA 52582

코너스른 교회 답합복사 : 이종용

RA (SESSED-ADACACHS, PAUGRAGAS)-BANG SAND S, Wester Are, Rador Cop, CA 9070-000



담임목사 : 김상명 주점 1부터리: 오건, 9:00 2부리리: 오건 11:00

나성서부교회

Tel (121)659-7323, (F)(121)639-1556 1218 S. Feldes Ave. L.A., CA 95015 (FlootFatrial)

디아스포라선교회

THE STATES OF TITLE (BUT MAN SHE), THE STATES OF THE STATE

복음장로교회

땀임목사 : 이정한

주의 1년에에 요전 8:00 주의 2년에에 오전 11:00 8년대에 오전 11:00 4년전에에 오픈 7:30 시네기도를 오면 5:45년 -2년 8:00(전)

대표 : 원영자 목사 목을 위에 없어는 원고의



담임목사 : 정상호

781,(275)005-4090 2776 James M Wood Shrt, L.A., GA 90056







수입 부여에 : 오전 8180 수입상하여 : 오전 10180 수입상하여 : 오전 10180 주입상하여 : 오픈 11180년 수입상하여 : 오픈 21180년 수입생하여 : 오픈 3100년년 소대에 : 오픈 300년년 Tel: 319-370-6500, Fax: 310-370-2003 19800 Mariner Ave., Terrenco, CA, 9063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Tel.(115366-6772, Fex(115366-6638 856 S, Novembroile Ave., L.A., CA 95005

■ L.A.: Tel. (\$23)665-0009 Fex. (\$23)665-0046 ■ N.Y.: Tel. (718)696-4400 Fex. (718)686-0074 机硅 制化 铬低...

8



104, 북극 시베리아의 놀라운 생존 이야기

올 여름 한국과 미 동부지역은 정 말로 더웠다. 또 미국에서는 가뭄으 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전 국토의 3분의1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 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이런 재난이 하나님께서 보 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란 것만은 확 실하고 이 재난의 주인도 하나님이 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한 가 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살인적인 더위가 인류의 죄로 인한 노아홍수 의 심판 사건 이후에 생긴 현상이 란 사실이다(창8:22). 지금 지구에 는 이런 더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추워서 살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 데 높은 산과 시베리아와 같은 고위 도의 극지방이다.

1. 북극시베리아의 놀라운 생존이야기

시베리아를 생각하면 얼어붙은 동토가 떠오를 것이다. 직접 가보지 는 않았지만 어렸을 적 한겨울 논과 밭, 산과 들의 땅이 얼어붙은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다. 이런 환경에서 겨울을 지내기는 참 어려웠다. 더구 나 영하 40℃ 이하로 떨어지는 남극 이나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현대 문명을 가진 지금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다. 더구 나 사람들이 석기시대라 부르는 시 대에 시베리아, 그것도 북극해 주변 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면 이것은 특 종 해외토픽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과학지들 중 에 하나인 사이언스(Science)지는 2004년 1월 첫 번째 호에 "북극 시 베리아의 놀라운 생존이야기"를 표 지기사로 실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30,000BC년 경, 북위 71도나 되는 시베리아의 야나 강(Yana River) 지역에서 살았던 사 람들이 남겨 놓은 신석기 유물들이 발견된 것이다. 세속 과학자들의 여 러 가지 빙하시대 이론들 중에 현재 가장 받아들여지는 이론에 의하면 빙하시대는 약 10,000BC에 끝이 났 고 빙하시대의 정점은 약 30,000BC 년 전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빙하시 대의 정점에 그것도 혹한의 시베리

아에서 석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 해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발견한 것 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고학자들이 시베리아에서 발견 한 증거들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머드, 레인 디 어, 말, 새들의 뼈들이 함께 발견되 었다. 이들도 사람들 주위에서 함께

지 못한다. 지표의 3분의1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7백-1200미터 이상의 눈이 쌓일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많 은 양의 바닷물이 증발되어야 하는 데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추운 빙 하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증발 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빙하시 대 전문가인 Daniel Pendick(1996) 은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일어나 지 않았다면 빙하기는 공상과학 이 야기처럼 들린다." 빙하시대가 어떻 게 가능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말

낍

세속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혹은 수만 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연 대측정 방법은 믿을만하지 않다. 결 정적인 근거는 나이를 알고 있는 암 석이나 나무의 연대를 측정해보면 연대측정법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 난다. 제대로 된 연대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과 상관성이 전혀 없 는 값을 준다. 앞에서 말한 30,000년 전 혹은 10,000년 전 이란 숫자도 탄 소동위원소연대측정을 한 결과인데 믿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예를 들면 고생대 지층에서 나온 석탄이 나 중생대 혹은 신생대 지층에서 나 온 석탄의 연대를 측정해보면 동일 한 연대가 나온다. 방사성(탄소)연 대측정법에는 진화론을 위해 숨겨

을 무렵 사람들은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 은 그것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언 어를 혼잡하게 하여 각 가족마다 다 른 말을 하게 하셔서 지구 구석구 석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이 때 화 산을 터뜨려 엄청나게 증발된 수증 기가 눈이 되어 육지에 쌓이게 하시 니 해수면이 낮아졌고 각 대륙들이 육지로 연결되었다. 사람들과 동물 들이 지나간 후에 빙하가 녹자 현 재와 같이 5대양 6대 주가 되어 서 로 통행이 어렵게 되었다. 따뜻한 해 수의 영향으로 좋았던 기후는 급변 하여 현재와 같이 혹한의 극지방과 혹서의 적도 지방의 기후가 생겨난 것이다.

빙하시대에도 화산이 없는 곳에 서는 눈이 내리지 않았고 따뜻한 기 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화산이 없었던 시베리아에서는 빙 하시대에도 수많은 매머드와 사람 이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알라스카 와 북미 지역에는 대규모 화산과 빙 하 혹은 빙하 지형이 동시에 발견되 지만 시베리아 지역에는 화산도 빙 하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뜻했던 바 닷물이 증발하면서 바닷물의 온도 가 내려갔기 때문에 태양 빛이 적은 극지방은 현재와 같이 춥게 되었을

진화론으론 설명 불가능한 빙하기, 성경으론 쉽게 풀려 화산 빙하 없었던 시베리아엔 매머드와 사람 함께 살아



우문현답

정답은 사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빙 하시대에 석기인들이 어떻게 북극 시 베리아에 살았을까?

살았다는 증거들이다. 학자들은 시 베리아에서 수백만 마리의 매머드 가 동토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빙하시대에 시베리아에 서 살았던 사람처럼 빙하시대 이후 에 멸종된 매머드도 똑같이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다. 빙하시대에 그 것도 시베리아에서 그렇게 많은 매 머드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단 말인가?

2. 진화론적 관점의 오류들

진화론의 역사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증거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혹자는 지금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 문에 아직은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올 바른 설명은 거짓에서는 나오지 않 고 사실에 기반했을 때만 나올 수 있 다. 진화론자들이 이런 수많은 증거 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터인 수백만 년의 진화가 사 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은 빙하시대도 설명하

져 있는 가정들이 들어 있다.

문명의 발달과정도 구석기-신석 기-청동기-철기시대로 이해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오류다. 이들 문명 들은 언제나 섞여 있다. 같은 시대에 지역에 따라 혹은 족속에 따라 다른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구석 기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아 리조나 Wupatki National Monument에 가면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Argue-ology"란 아주 재미있는 판 넬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실에 상관 없이 그럴듯하게 말만 잘하면 된다 는 고고학의 문제점을 스스로 공공 연하게 풍자하고 있다.

3. 성경적 관점으로 본 북극 시베 리아의 놀라운 생존이야기

예수님을 비롯하여 성경의 저자 들은 약 1년간의 노아홍수가 역사 적 사실이라고 말한다. 전 지구를 덮 었던 물들이 바다로 물러갈 때 대륙 이 갈라졌다. 갈라진 곳은 용암이 흘 러 나와 5 대양의 바닥이 되었다. 뜨 거운 용암으로 바닷물은 데워져 엄 청난 증발이 일어났고 지구 전체는 따뜻한 사우나처럼 되었다. 방주에 서 나온 사람들과 동물들은 북극이 나 적도 등 지구 어디에서나 자유롭 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 당 시 사람들의 수명은 450년 가량이 었다.

방주에서 나온 지 100년이 되었

것이다.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에서 과학자들이 수 수께끼처럼 생각하는 증거들은 이 성경 역사 속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 게 설명될 수 있다.

관점을 바꾸면 쉽게 이해될 수 있 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증거에 문제가 있는 것 이 아니라 관찰자 혹은 해석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찰자가 관점 혹은 설명을 바꾸어야 한다. 앞에 언급한 시베리아에 살았던 사람들 의 유물들과 매머드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다.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실이 아 닌 진화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역사 속에 들어 있다. 특별 히 진화론으로 희미해져버린 창세 기 1-11장의 역사에는 완전한 창 조에서 시작한 인류가 계속되는 죄 로 타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어둡 고 절망적인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이 어두움의 역사가 없는 복음은 반 쪽 복음이다. 그 어두운 역사를 통 해서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확실한 이 유를 알게 된다. 진화론에서 벗어나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바란다.

▲이메일:mailforwschoi@gmail. 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구별된 노이가쪽의 삶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 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녀인 인간들이 죄악에 치우쳐 극에 달하니 어쩔 수 없이 쓸어버릴 계획을 하십니다. 구해주어도 결국엔 또 죄 악으로 썩어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노아를 부르시어 은혜를 베푸십 니다. 여러 할아버지들로 500년간 신앙교육을 받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과 살아남을 방대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주제작에 필요한 것을 자세히 일러주시고, 노아는 하 나님이 명하신대로 따르는 100년의 긴 세월간 순종의 훈련을 통해 서로 간에 신뢰가 깊어갑니다. 말이 100년이지 홍수는커녕 비도 별 로 오지 않는 멀쩡한 날들이 계속되는데 온 식구가 아버지 노아의 말에 순복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온 가족을 손가락질하고 왕따 할 때 그 가족이 내심은 어 떤지 몰라도 반항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완성하는 100 년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지나갔을 것인가? 도무지 황당한 계획을 내놓고 멀쩡한 날에 방주를 짓는다니? 혼자면 몰라도 온 가족이 사

회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정말로 기막힌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지식한 믿음의 길 때문에 중간에서 고민했을 노아의 아내의 심중을 헤아려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온 가족들에게 쏟아지 는 조롱의 화살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는 감히 뭐라 못해도, 맹종 하는 어머니에게만은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답 답한 심정을 그대로 다 쏟아 놓았겠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쉬쉬 말리고 달래고 내내 맘 조리고 살았을 노아의 아내…힘든 현 실 속에서 아이들을 달래가며 남편을 조용히 세워가는 현모양처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노아의 사명에 저는 묵묵 히 힘을 보태줍니다. 이토록 받쳐주는 아내의 든든한 보조가 없었 다면 아마도 가족마저도 노아에게서 등을 돌리고 방주를 짓는 계 획은 무산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지막지하게 큰 방주를 혼자 지 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인력이 합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외골수 인 그가 과연 가족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불러내도록 자상했 을까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하시니 방주를 짓는다고 계획을 통 고하고 이에 필요할 명령을 한 것 외에 가족들을 설득했을까요? 깊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볼수록 노아 아내의 조용한 내조가 큰 몫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노아가 500세에 방주 짓기를 시작하고 502세에 셈을 낳기 시작 하여 함, 야벳 (나이 터울을 자세히 몰라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 어날 때부터 가족의 일이 방주 짓는 일이었을 테니 나이가 들어가 며 왜 우리는 남달리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며 살까 회의들이 들어 도 아버지의 하시는 황당한 일을 반역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노 아의 아내가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동조했더라면 그런 연합은 불가 능했겠지요. 노아의 믿음보다도 어쩌면 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 야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방주를 완성하는 것은 가족의 헌신이 없 었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온 가족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끈이의 역 할을 잘해냈다고 보입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앞으로 나아온 동물들을 방주 안에 각기 맞는 방으로 들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론 정신이 돈 것 같은 노아를 가장 이라 믿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니 8식구 모두가 홍수의 심판 에서 구원받는 복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진짜 홍수가 올까? 긴가 민가하던 홍수가 쏟아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었지만 홍수 를 통과하여 살아남은 8식구의 기막혔을 마음을 생각합니다. 가장 의 삶의 뚜렷한 믿음이 온 가족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또한 노아 의 방주사건은 노아 한사람의 승리라기보다는 노아 8명 가족의 연 합의 승리입니다. 가족은 죽어도 함께, 살아도 함께 삽니다. 지상의 모든 믿는 자의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마음 으로 순종하는 신앙관으로 처한 곳의 구원방주가 되길 간절히 소 원합니다.



텐버한인장로교회 답입목사: 김 유

Tei (3535-625-6365, Fez (303)-672-696) 7788 Riping St. Arveds, CO 80056

재시온침레교회 답입목사: 정용교 주입1부에에: 오건 8:30 주입2부에에: 오건 10:00(80) 주입3부에에: 오건 11:30 수요한함에: 오주 7:00

10/350/416-0131 0007 Pecific Ave. St. P.O. BOX 6358 Lacer, WA 86505



주민남에에: 오건 11:00 수요에다: 오후 7:00

Tei (254)834-8705, (254)501-492) 408 M, 8th St., Killenn, TX 78547



pre: (bpcaz, com Tul (480)725-0151, Faz, (480)667-3027 TIEO 2, Octoon Rd, Chander, AZ 86286

몽고메리교회



No. (\$10022 - 0001 | 267 - 277 - 7777 Faz. (\$100722 - 0050 2760 Merris Rd. Lanadars, PA 19446 시에를팽강장로교회 답입목사: 빡은잎 주일명에제해: 오전 10:00 주일강부에제: 오전 11:15 소요가녕에제: 오픈 7:30 소요가녕에 1: 오픈 7:30

THE (FORESTT-ORDET, Place (2008)534-1748 4040 M.E., 19335 St., Sewerter, MA 581275 THE REPORT OF THE PROPERTY OF THE PROPERTY

워싱콘테시야장로교회

답입목사: 한세영 주입1부대학: 오현 8:00 주입2학대학: 오현 11:00 유입2학대학: 오현 11:00(田리) 수요대학: 오후 8:00 원임2학대: 오후 8:00 서학대학: 오전 8:30(출 표)

Tel Croston - 460°, Fee Croston - 4445 4913 Merthes St. Accession, VA 22003



741,7869649-4738, Fax,9869874-0666 360 Chapel Road Manchester, CT 00045

<u> 벅스카운티장로교회</u>



Tel 5749346-1612, Fex 5749346-8596 1650 Mondourne Rd., Lauthours, FA 19067



답입목사: 김진우

주에수교회 답임목사: 백현찬

주입1부에서: 오픈 8:00 주입2부에서: 오픈 8:30 주입3부에서: 오픈 8:10 주입4부에서: 오픈 8:15

Tel (804550-7505, Fer. (804550-7514 1920) Robbus Sd., Richmond, VA 23235

세계로뿐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벤엠교회

당입목사: 전용대 주입 [부리 바탕] 오픈 7:00 주입구대하다 : 오픈 6:15 주입구대하는 2은 1:35 주입구대하는 2은 1:35 구입대하고 오픈 6:00 수입하는 오픈 8:00 개대기도의 오픈 6:00(8-5)



TAL (BOTTERN-SOLE), AND (BOTTERS-STY) BOS KINDY RO., LENS ROOM, AR 72211 큰무리교회



www.jossprawsex.c. 即包以47人以云,至,不包) Tel (410)209-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ffect! City MD 21042

아가래선교침레교회 담임복사: 이남수 주입(학회학: 2년 8:00 주입(학회학: 오후 11:00 주입(학회학: 오후 1:30 수요선임(학학: 오후 7:00 서학기도학: 요선 5:30(후~조)

To. (806)1735-0011 1535-A Pololo Ave, Honotzio, Hi 96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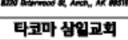


담임목사: 전액영 주입하다(하다) 요전 11:00 유학원(대학 및 2전 11:00 유학원(대학 및 2전 6:00 대학(대학 도착 6:00 대학(대학 도착 11:00 대학(대학 대학 (대학 6:11) 대학(대학 대학 (대학 6:11)



담임목사: 유재임 주일1구마타: 오건 10:00 주일(구마타: 오건 11:00 물이라의: 오전 11:50 주업에서이와: 오후 2:00 수준의에:오후 7:00

Tek (907)344-6560, Fex (907)344-3192 8220 Brightmood St., April., AK 99518





Tel.(251)565-1008 7461 S, Verde St, Testage, IIA 98406

어덴장로교회



Tel. (908)1739-1004, Coll. (808)218-4692 1063 9th Ave., Hunskill, NT 98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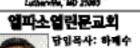
간보리장로교회 단입목사: 조용원 주입낮에를: 모천 11:00 주입자보존함하며: 요휴 7:30 추요기도록: 요휴 7:30 시하기도록: 요천 8:00(중~또)

Tel (702)679-7678, Fex.(702)267-6191 6664 H. Deeset km, Rt. Las Veges, NV 86140



탐임목사: 이영설 주입(부이바: 요즘 8:20 주입2부이바: 요즘 10:00 주입3부이바: 요즘 11:30 주입4부이바: 요무 12:00

Tel (410)357-3445, 583-6151, Fev. 557-3445 1806 Sentinary Are, West, Lutherville, MD 21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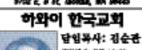








Tel (253)535-6207, 531-8424 Plat (253)530-1423 5702 E. B St. Taoman, WA 58445





Tel. (206)277-2536, 667-1778, 662-2822 1961 S. Bersteste St. Hee., Ht 96816



남부한인장로교회

TH. (704) - SET - SET! Fox (704) SET - 1626 MANUS: (704) SET - 4412 2019 MeXew Rd., Charlette, NC 26270

삼툿장로교회

Tel. (704)529-5900 / 6038(MA.SE)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MC 24268

영생장로교회

Tel (215)542-0285, Fex.(215)842-605; 708 Witner Rd, Horsken, PA 19044

탁코마 한인장로교회

답입복사: 송성설

주립(부이다: 보면 9:30 주립(부이나: 요한 11:00 수요에다: 오후 8:00 군요에다: 오후 8:00

답입목사: 나성군

주입세계기도: 시청 8100 취임에임에대: 오전 10:45 수요한당에대: 오픈 8100 공요한당에대: 오픈 8100 유럽하고에대: 오픈 11:00 중,고등부계대: 오픈 11:00

답입목사: 이용경

주입니다에 최: 오픈 7:30 주입하여 최: 오픈 5:30 주입하여 최: 요한 5:30 주입나다 (10:00 주입나다 (10:00 주입나다 (10:00 주입니다 (10:00 주입니다 (10:00)

皇皇才医斯: 京年 6:00

답입목사: 감수명

1부당이대표: 모인 6:30 부담님대표: 요한 11:00 이렇게 대한 오후 1:00 수요에는 요주 7:00 임유된기대표: 요주 7:00

주설(부여)와: 오전 8:00 수설(부여)와: 오전 11:00 주업(부여)와: 오전 11:30(영어) 주설(부여)와: 오후 7:00

Tel. (806)947-6262, Faz. (806)947-6151 www.hasabisherch.org 2122 Metcall St., Haneldo, Hi 98822

말씀과 기도...싱글모임 TBP

LA지역 싱글들을 위한 모임 TBP(The Blessed People, 대표 이 경연 전도사)가 매주일 오후 5시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 친 교실에서 열리고 있다.

TBP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 자로다'(신33:29)라는 말씀을 가지 고 시작된 모임으로 지난 8월 첫째 주부터 모임을 갖고 있다. TBA대표 이경연 전도사는 "싱글들과의 만남 을 갖다보면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마 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들이 비록 독 신과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고 말 했다.

이경연 대표는 특별히 30대에 접 어든 싱글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 는 비관적인 마음을 신앙훈련을 통 해 바꿔주고 싶다고 밝혔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간 것은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 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며 신명기 말씀처럼 행복 자가 된 것인 만큼 싱글들의 자아상도 주안에서 믿음 으로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TBA모임은 지난 1월 기도모임으 로 시작 목장모임형식으로 전환해 모이고 있다. 그리고 한달 전 LA비 전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모임을 시 작하게 됐다. TBA는 매주일 오후 5 시 식사와 예배로 1부 순서를 시작 하며, 2부 순서로는 큐티세미나와 바이블스터디로 청년의 시기에 하 나님의 자녀로 바로설수 있도록 도 움을 준다. 그 이후 티타임 등으로 교재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경연 대표는 "타운 내에 여러

형태의 싱글모임이 있다. 그러나 신 앙 안에서 모이는 것이 아닌 싱글 청산을 위한 모임이 돼 주님을 전 할 기회의 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떤 교 계단체에서 주최한 싱글모임의 경 우 남묘호렝게쿄 신자가 있었음에 도 방치해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이 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케이스도 있다며 TBA는 단지 모여서 즐거운 시간만을 갖는 것이 아닌 말씀과 기 도가 함께 가는 싱글모임으로 이끌 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경연 대표는 "하나님께서 TBA 에 주신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 매쟁이 역할이다. 성도들을 그리스 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우는 것이다.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 다는데 그것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시간과 인생 에너지 등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하 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방자히 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청년의 시기를 말씀 앞에 바로서서 주안에 서 건강한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란 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본사방문



9월20일-22일까지 진행되는 BMW를 소개하고 있는 이준성선교사

는 "미주지역 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 운 상황으로 인 해 교회와 성도 모두가 위축된 느낌이고 선교 운동 역시 쇠퇴 해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비 즈니스 미션은 21세기에 하나

사, Kosta국제후원회장),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김진수 회장(Image Solution Inc), 방선 기 목사(직장사역연구소장), 백바 울 사장(Sky Miro), 안정삼 회장 (Otimotex), 채종욱 회장(Hosung NY Inc), 김기영 목사(TW대표) 로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기업경 영의 노하우를 전달하며 이 기업 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크 리스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 신을 다해 강의에 임할 예정이다.

이준성 목사(ANC온누리교회/BMW준비위원)

가 신설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미션학교를 통해 일터 영성의 개념을 새롭게 성경적으 로 관찰하고 돈과 일에 대한 성경 적 정의 아래 일이라는 것이 단순 한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을 들어 낼 수 있도록 주신 도구'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비즈니스 안 에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도록 돕게 될 것이 라고 귀띔하며 이 귀한 사역에 많

"당신이 선교사이고 당신의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ANC온누리교회(담임 소 목사)에서 열리는 제 1회 미 주 비즈니스 미션 웍샵(Business Mission Workshop 이하 BMW) 이 9월 20일(목)부터 22(토)까 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 하고 있는 이준성 목사(ANC온누 리교회 선교목사)가 31일 본사를 방문해 세미나를 소개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 다"라고 입을 여는 이준성 목사 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 는 전도와 선교 전략"이라고 피 력했다.

이 목사는 "전 세계의 모든 비즈 니스인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 하 나님께 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올 리는 크리스천기업인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금번 미션 웍샵에 초청된 강사 는 권경섭 회장(소비코 대표이

이번 웍샵은 한국 비즈니스 미 션 아카데미와 공동주최인데 이 미 이를 통해 헌신하는 이들이 쏟 아지고 있다고. 이준성 목사는 " 이 세미나를 통해 '선교는 선교사 가 하는 것, 은퇴 후에나 가능, 멀 리 가는 것' 등의 고정관념과 생각 을 확 바꿔준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를 마치면 내년부터

는 미주에도 비즈니스 미션 학교

은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준성 목사는 2003년부터 멕 시코 쿠아레스에서 신학교 사역 하다 지난해 말 다시 ANC온누리 교회로 복귀했다.

본 웍샵의 등록 및 문의는 (818)834-7000(ext.116)이며 접 수는 9월 20일까지이다.

〈이성자 기자〉



LA지역 30대이상 싱글모임인 TBP가 LA비전교회 친교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 천 목사 Miracle Blessing 찬양음반 출시

"마지막 날에", "새벽이슬" 등 많 은 교회에서 널리 불려진 찬양을 작곡한 이 천 목사가 미러클 블레 싱(Miracle Blessing)이란 주제의 음반을 최근 출시했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사역중인 이 천 목사의 이번 앨범은 이 목사 의 7번째 음반으로 작년에 이어 실 시된 주님의영광교회 40일 저녁집

회의 주제곡을 만든 것이 계기가 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음반 은 승리하는 미러클 블레싱 집회의 주제곡인 '미러클 블레싱'(주 성령 님 이 시간 오소서)을 비롯 총 9곡의 주옥같은 찬양곡이 수록돼 있다.

이 천 목사는 "이번 음반 출시를 위해 지난 1년간 준비해왔습니다. 모든 곡들이 자작곡으로 많은 분들 이 이 찬양곡들을 통해 은혜받았으 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음반의 첫 번째 곡이자 타이 틀 곡인 '미러클 블레싱'은 요한복 음 16:24 말씀을 근거로 만든 곡으 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 하자는 내용이 담긴 곡이다. 두 번 째 곡인 '내 가슴 깊은 곳에'는 주

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찬양하는 곡 으로 엡1:13-14을 근거로 만든 곡 이다. 이 곡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는 성찬식을 할 때 불려지는 곡이 다. '모든 사랑 드리리', '글로리어스 데이', '주만 보이게' 등 3곡은 이천 목사가 본 교회 청년부를 담당할 때 만든 곡이다. 이외에 보너스트랙으 로 수록된 '주 사랑이 나를 덮네', 내 상처가 별이 되어', '가장 행복한 사람' 등은 이 목사 본인의 곡을 다 시 리메이크 한 곡이다.

이 천 목사는 이번 음반출시를 기 점으로 찬양사역에 박차를 가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천 목사의 미러 클 브레싱 음반은 현재 조이서적과 할렐루야 서적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다.

▲음반 구입에 대한 문의는

jinsam2000@yahoo.co.kr로 하 〈박준호 기자〉 면 된다.



찬양사역자 이천목사가 최근 출시된 미러클 블레싱 음반을 들고있다.

평화나눔공동체 한인청소년 2명 오바마대통령자원봉사상받아

지난 19일 미국 수도 워싱턴DC 에 위치한 3가교회(담임목사 체릴 샌더스 목사)에서 두 명의 한인 청 소년들이 백악관 대통령자원봉사 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오바마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두 한인 주인공은 그간 수년 동안 가 난한 노숙자들을 돌보았으며, 유엔 및 국제기구들을 통해 빈민퇴치운 동에도 참여해 수상하게 됐다.

버지니아 훼어훽스에 거주하고 있는 대니얼민(토마스 제퍼슨고 12학년)군은 지역사회봉사활동 외 에도 동료 친구들을 통해 빈민퇴치 와 노숙자 돕기운동을 전개해 주목 을 끌었다. 대니얼민 군은 "개인적 으로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동료들을 통해 홍보를 하 고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학교친구들과 협력을 한다면 물질 적인 도움도 더 효과적이고 실재적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년 전 평화나눔공동체를 방문해 노숙자교회를 통해 노숙자들을 돌 보며 자원봉사를 해왔던 윤종승군 (관동대학교 영문학과 재학)은 "평 화나눔공동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도전은 크리스천으로서 세계관과 국제봉사활동의 비전을 배운 것"이 라며, "특히, 선교와 국제봉사활동 은 현대 교회들이 전개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나눔공동체 최상진 목사는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청소년들에게 유엔 및 국제기구 봉사활동을 통해 대통령자원봉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줄 것"이라 며, "여러 단체를 다니며 봉사하는 것보다는 실재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봉사단체에서 꾸준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봉 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수상 후 기념촬영. 김응수 목사, 대니얼민, 윤종승, 체릴 샌더스 박사, 최상진 목 사(왼쪽부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오류가 많아 「한글 개역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すヨ마서겨ス



디모데전서 제 3, 4장 3 "미쁘다 이 받아여, 사람이 장목 의 작분을 얻으며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합이로다 보다는 한 생생이 말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에니 10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후에 해당할 것이 없으면 집사 의 식분을 하게 할 것이 없으면 집사 의 식분을 하게 할 것이 요. 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며 근신(護旗)하며 가단하여 나고네를 대접(持接)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1,90의 등등을 생기고 조심한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라는 자일째 나 보다 자기 집을 잘 다스라는 자일째 나 되었다. 13 접사의 직분을 잘한 자물은 아름다 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답력을 얻느냐라 14 이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 dounce 예약하른, 단정한, 점점은 이란 뜻으로, 이는 균형 집힌 마용 상태로 점점 오마 품위 있고 여의비로게 뿜통하는 것을 의 호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 니하여 오직 관용(寬靠)하여 다두지 아니하며 돈을 사람치 아니하며 1 자기 점을 잘 다스러 자녀들로 모든 - 단점함으로 복종(服從)계 하는 자 라야 함께며 대전312 14 이네가 속이 네가 가기를 바라나 이 것을 내가 지세(選擇)하면 너도 하나 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한 것 을 알게 하려 합이니 이 집은 살아게 신하나님의 교회요 전리의 기능과 다이니라 16 크도다 경건(長度)의 비밀이어, 그렇 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 으로 나타난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 +이에 해당하는 텔리어 기본형 웹노테스 (prpvirts)는 '위점', 준장', '엄숙' 이라는 뜻으로, 이는 자녀들에게 부런 있고 엄숙한 모 습을 보며 주어 존경성을 가지고 따라오도록 으로 나타난만 되시고 형으로 의급 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 이시고 반국에서 전화(排攝)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 대서 윤리우셨음이니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이끄는 갓을 의미반다. 5 (사람이 자기 침을 다스릴 줄 알지 못 하면 어쩌 하나님의 교회(教會)를 들 하면 어쩍 하나님의 교회(數함)을 들 아보리요) 새로 입교(人教)한 자도 말짜니 교만 하어져서 마귀를 정확하는 그렇게에 빠질까 합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 은 자라야 할짜니 비망과 마귀의 울 무세 배진과 어리하다. 하여져서 마귀를 정최하는 그 전화에 빠질까 합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

은 자라야 할꼐니 비방과 마귀의 울 무에 빠질까 엄리하라

주 이와 걸어 집사(執事)들도 단정(鑑 正)하고 '얼구 이언(-□□급)을 하 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 고 더러운 이(利)를 탑하지 아니하고

1. 한 입으로 두 딸물 한다는 뜻으로, 말을 마랐다서

「한글 개역 성경」은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다소 읽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호크마 성경전서」가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단어는 정확한 뜻 풀이로, 난해한 구절은 원어의 의미를 밝히고 보충 설명하여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대한 한국 교계 언론의 반응

"번역상 오류된 단어나 문장이 1만여 곳이며 그 중 신속히 고쳐야 할 곳만도 4천여 곳이 나 되고, 심지어 개역 성경에서 바르게 번역된 내용을 **개악(改惡)한 경우가 7백여 곳** 이나 된다. 또한 서둘러 출판하다보니 결국 **네 번에 걸쳐** 판을 낼 때마다 새로운 성경으로 둔갑하는… **'누더기 성경'** 이 되고 말았다**."** (교회 연합신문, 2011년, 7월 22일자)

미주서점) 호산나서점 (626)810-0014 Joy기독백화점 (323)766-8793 뉴욕한국서적 (718)762-1200

18 기독지혜사

* '화만 (火료)은 노래 때에서에 주만이 노예 의 선택 부위를 불로 지지 지기 소유를 표시하

각이 없어지게 된다. 결국 말심이 화인 닿은 사

팔등은 자기 자신들의 약한 행동에 대해서 감

각이 무뎌진 자들이다면 47만

동부교계 게시판

KAPC 뉴욕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산하 뉴욕노 회(노회장 조문선 목사) 정기노회가 오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린다. 노회에 앞서 9월 4일 에는 임사부, 임원회, 고시부 모임이 있게 된다.

▲문의: (973)470-8407

WOW 전인치유 세미나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이 주관하고 뉴욕 교협과 목사회 각 기독언론들이 후원하는 황성주 박사(꿈이있는교 회 담임)의 WOW 전인치유 세미나가 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인생의 모 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세미 나"라는 회비는 없으며 중식이 제공된다.

▲문의: (718)463-1700, (347)538-1587

뉴욕복음화 연합전도 부흥성회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황영진 목사)가 주최하는 뉴욕복음화 연 합전도 부흥성회가 9월 21일(금), 22일(토) 오후 8시30분, 23일(주) 오후 5시 낙원장로교회(뉴욕새천년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탈북 공훈배우 주순영 선교사로 신앙간증을 하게 된다.

▲문의:(917)349-5631, (718)309-7966

이영훈 목사 초청 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성회가 뉴욕에서 열린다. 일 정은 △일일성회: 9월 10일(월) 저녁 8시 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 승호 목사) △성령충만 치료대성회: 11일(화) 저녁 7시30분 뉴욕 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

▲문의:(718)359-0166, (718)461-7835

교육전도사 청빙

구세군 뉴욕한인교회에서 교육파트를 담당할 전도사를 청빙한 다. 자격조건은 신앙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신학전공 혹은 졸업 자로 운전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풀타임의 경우).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신앙 간증문이 필요하다.

▲문의: vision819@hanmail.net

주일학교 전도사 청빙

브롱스에 위치한 C&MA 교단 소속 미주화광교회(담임 김연식 목사)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청빙한다. 간단한 자기소개서가 필

▲연락처: population81@hotmail.com

반주자 청빙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반주자를 청빙한다. 자격 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 받은 자로 음악을 전공하고 교회 반 주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력서와 신앙고백서가 필요하다.

웹사이트 www.nysoojung.org

▲문의: (718)461-9800/교회, (917)293-6830/지휘자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개강예배를 마치고 교수와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청년연합집회 "Blessing NY" 열린다

12월 7-9일 백투워십 주최 뉴욕교협 후원

청년연합집회 "Blessing NY"이 오 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PlanPlay Inc.(대표: 이종길)가 주최하고 뉴욕 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후원으로 열린다. 장소는 미정.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함

께 기획하는 대규모 청년집회로 주 최 측은 "잠자고 있던 뉴욕 청년들 을 일깨우며 이 집회가 진정으로 은 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는 "뉴욕할렐루야대회 가 있지만 뉴욕일원의 10만 명으로



뉴욕전도대학교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땅끝까지 이르러...." 뉴욕전도대학교 개강예배

뉴욕전도대학(학장 김수태 목사)이 지난 4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개강예배를 드리 고 2012년 가을학기 수업에 들어갔 다. 이번 개강은 뉴욕전도대학을 시 작했던 김수태 목사가 다시 학장을 맡아 시작된 첫 학기여서 관심이 되 고 있다.

신임학장 김수태 목사는 강사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영성훈련과 현장 전도에 역점을 두고 강사를 선정했 다고 밝혔다. 강사들을 자신의 강의 에 대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 다. 김 목사는 내년부터는 2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미 지 역에 현장선교를 가는 방법까지 생 각하고 있다며 참석 목사들의 참여 를 당부했다.

예배는 김수태 목사 사회로 기도 김 진호 목사, 찬양 손소혜 집사, 설교 방지각 목사, 결단의 기도, 봉헌기 도 마초훈 목사, 광고 박차숙 전도 사, 감사패 증정 및 강사 소개, 축도

한진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6-20)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예 수님의 유언으로 이를 잘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 랑에 대한 보답으로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 성의 하 나님 백성을 찾아 복음의 약을 먹여 야 한다"고 말하고 "성령 받아 전도 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감사패는 양승호 목사, 오태환, 김 영환 목사, 김희복 목사, 박차숙 전 도사에게 전달됐다.

한편 이번 학기 강사 및 강의 제목 은 다음과 같다. △마초훈/현장전 도 △김진호/영성운동 △박성천/ 교회론 △김호성/도시선교 △김종 원/영성운동 △박차숙/기도인도

학사 일정은 10월 6일 소풍, 전도대 회 11월 1일, 종강 11월 20일로 돼 〈유원정 기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 배반자"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2012가을학기 개강예배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이 지난 3 일 저녁 개강예배를 드리고 4일부 터 2012학년도 가을학기 수업에 들 어갔다.

개강예배는 김승민 교수 인도로 말 씀은 유상열 학장이 전했다. 유상열 학장은 갈라디아 1장 6-10절을 본 문으로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는 제목의 말씀에서"사도바울은 갈라 디아교회 내에 있는 다른 복음에 대 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왜 다 른 복음이 위험한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다"고 전제하고 "다른 복음 은 첫째,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 기 때문이며 둘째, 참된 교회에 대 한 최대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고 셋 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학장은 "특히 복음전도에 대해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 님을 떠나는 우상숭배와 다름없다" 며 "복음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나 첨가는 본질을 바꿔버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저주한다고 말 했다"고 역설했다.

본 신학교는 매주 월, 화요일 저녁 6 시30분부터 수업이 시작되며 이번 학기에 △조직신학/유상열 △교회 사/최호익 △해석학/김승민 △성 막론/이종명 △교육학/조국환 등 이 오픈된다. 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이번학기부터 새로 시 작하는 실용음악 수업이 실시된다. 한편 지난 6월 졸업생들과 졸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논문작성법 강의가 지난 6일 열

〈유원정 기자〉

추정되는 유학생 청년들에게 은혜 의 장과 회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는 것이 이번 집회의 동기"라고. 강사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전문으 로 하고 있는 박수웅 장로가 처음 으로 뉴욕을 방문한다. 박수웅 장로 는 호주,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아 프리카 등 5대양 6대주 순회강연과 일본, 한국, 상해 등 코스타 강사 사 역, 미국 JAMA 인터내셔널 디렉터 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본 집회 중 8일(토) 낮에는 박 수웅 장로의 전문사역분야인 '크 리스천 결혼'세미나가 준비돼 있 어 적령기에 찬 미혼 크리스천 청

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 이종길 집사 (백투워십/PlanPlay Inc.)는 "나날 이 흉흉해지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일반 공연과 교회 안의 다양한 집회 와 행사를 디자인하며 뉴욕에서 현 재까지 10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길 집사는 예수전도단 화요모 임 인도를 시작으로 미동부 지역 에서 찬양사역단체 백투워십과 함 께 찬양집회를 50여회 디자인/인 도했으며 CTS 뉴욕방송의 기획팀 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info.planplay@gmail.com, (646)942-2078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선교바자회(위)와 8월 월례모임(아래)

콜롬비아아동선교센터 기금마련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선교바자회 및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황 영진 목사)가 지난 1일 선교바자회 를 열었다.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 남 목사) 플러싱 선교관에서 열린 바 자회에는 주로 회원교회들이 각종 의류들을 모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 했다. 동 기구는 9월 방문하는 콜롬 비아아동선교센터 건축기금 후원을 위해 이번 바자회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29일에는 거북선 식당 에서 8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남 목사 인도로 기도 홍명철 목사, 설교 황영진 목사, 축도 김 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 목사는 잠언 19장 17절을 본 문으로 기아대책에 대한 설립목적 과 취지인 '떡과 복음'에 대해 강조 하며 "선교목적을 갖고 시작된 기아 대책은 교회가 참여해야 할 단체"라 고 말하고 "이 모임인 형식적인 모 임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기아대책 은 '내가 베푸는 물질을 통해 한 마 을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현지인들을 자립시키 려는 운동이다. 74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기아대책만 잘 섬겨 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고 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경건회는 임병

회무에서는 △9월 24-27일 콜롬 비아아동선교센터 방문 △11월 5일 하와이 VOC(Vision of Community) 훈련 참가 등을 광고했다. 또 홍명 철 목사가 지난달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기아대책 지역모임 참석 보고 시간을 가졌다. 홍 목사는 "기아대 책의 원리인 작은 것부터 시작해 큰 것으로 돕게 되는 것에 감동을 받았 다"며 "하와이 VOC 훈련은 성도들 의 리더십 훈련에 적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날 지난 8월 김정화 홍보대사 뉴욕방문 시 뉴욕어린양교회에서 가진 아동결연이 큰 성과를 가져왔 다고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기독교인을 위안 최고의 선물

다니엘 전자성경

O만나 전자성경



신앙서리, 일반서리, 선ːː도서, 비스프 셀리, 국정/골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용악, 디지털바이블, 폭회약 선약, 성경/진송각 생세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역임반, 생전신역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왔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제작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결의 제품, 저렴한 가격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유항/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원

· 선명약고 날은 LCD의면 · 원용에 가하은 연주

- 본체 고용장 스피커 · USB 호스트 가능

· SD까도 사용 · 타시스크린 행식 · 정시간 연속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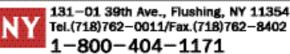
HITな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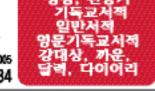




인터넷 샤핑몰 www.gospelmall.com







미주산돌회 주최 고 김계용 목사 22주기 추모식과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금을 수

고 김계용 목사 22주기 추도식 및 산돌회 장학금 전달식

최지형 전도사 등 총15명 장학금 수여

미주산돌회(회장 박희민 목사)는 고 김계용 목사 22주기 추도식 및 산돌회 장학금 전달식을 1일 오전 11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최했다.

박희민 목사 인도로 시작된 추 도식은 임동실 권사 기도, 안덕원 목사(본회 총무)가 '주는 자의 복'(행20:3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안 목사는 "산돌회는 living stone 즉 살아있는 돌이며 생명을 주는 돌이다. 사람이 복 받는다고 성서는 가르친다. 우리는 받은 자 로서 주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 다. 설교에 이어 아카데미 목관 오 중주의 특송이 있었으며 김득룡 목 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장학금 전달식은 최지 형 전도사(남가주사랑의교회) 등 15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최 지형 전도사는 "너무 귀한 장학금 을 주셔서 감사하다. 지금은 받는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 학업과 사역 에 충성해 베푸는 자가 돼 소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고 싶다"고 소감 을 밝혔다.

산돌회는 1952년 10월9일 한글 날 오후 당시 전도사였던 김치은, 김계용, 김병주 목사가 물질적으 로 곤경에 빠진 신학생들에게 도움 을 주고자 창립했으며 미주산돌회 는 1974년 7월12일 김계용, 정원희 김은석 목사가 설립해 지금까지 활 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다음은 미주산돌회에서 전달받 은 장학생 명단이다.

최지형, 송섭(이상 탈봇신학교), 백수현, 송은익(이상 아주사신학 교), 이원욱, 임정훈, 정호남, 정희 중, 김미혜, 서연아, 이민경(이상 미 주장신대), 정성철, 민성혜(이상 가 주신학교), 신미숙(루터신학교)

〈박준호 기자〉



남가주주님의교회 새생명축제 행복한동행 집회에서 한의준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새생명 축제 "행복한 동행" 집회

남가주주님의교회 한의준 담임목사 강사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가 새생명 축제 "행복한 동 행"(5) 집회를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하나님의 소원'(요3:16)이 라는 주제로 열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 작된 둘째 날 저녁 집회는 김호세 장로가 대표기도를, 최현규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한의준 목사 가 '한 가지 아는 것'(요9:24-38)이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한의준 목사는 "예수님께서 소경 을 만난 것은 단지 소경이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 이다. 소경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 이 변화되고 인생에서 가장 절망이 었던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했다. 이는 절망적이고 소망 없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가진 것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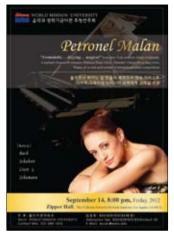
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이며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 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통해 내 인 생이 변했다는 확실한 스토리가 힘 과 확신으로 이어진다. 예수그리스 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섭리하 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속에 성령 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 성 장 부흥하는 교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부흥회는 첫날 저녁 '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1:35-39), 둘째 날 새벽 '와서 보라'(요 1:35-51)라는 제목으로 한의준 목 사가 설교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 장학기금 마련 초청연주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트로넬 말란



WMU음악과 장학기금 마련 초청 연주회 포스터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 사)는 WMU장학기금마련 초청연 주회를 14일 저녁 8시 지퍼홀에서 갖는다. 이번 초청연주회는 남아공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트로 넬 말란이 출연해 바하, 슈베르트, 리스트, 슈만 등 주옥같은 피아노 곡을 연주해 가을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게 된다.

LACMA에서 9월 9일 연주차 LA 를 방문한 페트로넬 말란은 한인들 과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14일 연주 회를 갖게 된다. 블르트너 피아노

및 한슬러 레코드사의 전속 아티스 트인 그녀는 다수의 그래미상 후보 자, 국제대회 금메달을 수상한 경력 을 가지고 있다.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WMU음악과 황소명 교수는 "많 은 한인 뮤지션들이 있지만 페트로 넬 말란 연주회를 마련하게 된 것 은 한 차원 높은 연주가의 공연을 소개해 한인사회의 문화적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뿐만 아니라 USC, UCLA 등 미국학교의 전유물 로 여겨져 왔던 것을 이제는 한인 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한국계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공 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이번공 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번공연은 클래식공연이지만 대중성과 작품성이 한데 어우러져 서 다분히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 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며 관객들에게는 클 레식도 얼마든지 흥미로울 수 있다

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공연에 대한 문의는 (213)388-1855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아시아발달장애인센터(ARS) 기금모금행사에서 ARS 스텝들이 기념촬영

발달장애우 자립위해 직업훈련

아시아발달장애인센터 기금모금행사

분 미일문화커뮤니티센터(Japanese American Cultural & Community Center)에서 기금마련 행 사를 개최했다.

이날 스티븐윤(Director of Client Service) 전도사는 "이번 행사 를 통해 ARS사역이 한 단계 업그 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 터 원생들이 기쁨으로 임했으며 많 은 분들이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

아시안 발달장애 서비스 센터 앞으로 ARS가 좀 더 발달장애인들 (ARS)가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 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 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날 행사는 ARS 스텝소개 및 밴 드와 원생들의 포퍼먼스 등 다채로 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 ARS는 설립 39년 전 설립돼 LA 지역의 성인 아시안 발달장애우에 게 직업훈련을 통해 독립생활 능력 을 훈련시켜 자립한 성인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훈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세계비전교회 가을 영적부흥집회

세계비전교회(담임 김영빈목사)가을 영적부흥집회가 13일(목)부 터 15일(주일)까지 열린다. 집회 일정은 13일(목) 저녁 7시30분 한기 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14일(금) 저녁 7시30분과 15일(토) 새 벽6시와 저녁 7시 김기동 목사(소중한교회 담임)가 각각 말씀을 선 포한다.

▲문의: (8180363-5887, 368-9881-2

LA 정신건강국, 한인교계지도자 초청모임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이 한인 교계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 해 올바른 정신건강확립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한다고 한인 소셜워커 안정영씨가 전해왔다. 이 모임은 12일(수) 오전 9사-11시까지 LA 카 운티 정신건강국 본부(550 S. Vermont Ave) 9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 문의: (213)738-3446

베델아기학교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는 19일(수)부터 12월13일(목)까 지 12주 코스 '제5기 베델 아기학교'를 개최한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유놀이, 찬양과 예배, 선생님과 함 께하는 소그룹 배움 등으로 엮어진다.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되며 수요반(15~30개월)과 목요반(26~40개월)이 있다. 등록비 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전반 170달러, 목요 오전 오후반 270달러.

▲ 문의: (714)323-5280

남가주교회음악협회주최 창작성가제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김미선 교수)가 주최하는 창작성가제가 16일(주일) 오후7시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개최된다. ▲ 문의: (213)820-3873

2012 미주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

국제목양사역원(원장 최홍준 목사)는 LA지역 2012 미주목양장로 사역컨퍼런스를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월요일부터 수 요일까지 저녁6시30분부터 9시10분까지이다. 강사는 최홍준 목사(국 제목양사역원장), 홍민기 목사(부산호산나교회 담임), 고현권 목사(베 델한인교회 부목사), 김명섭 목사(부산호산나교회 부목사)

▲ 문의: 최윤정 간사(949)751-8507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설립30주년 행사 잇달아

임직식 비롯 세미나·부흥회·찬양집회·타인종 초청잔치 등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담임 윤 선식 목사)가 설립30주년을 맞아 오는 9일(주) 오후 4시에 임직식 및 은퇴식을 개최한다.

이번 임직식 및 은퇴식에서는 그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박구 산 장로가 은퇴하고 김남근 김경숙 박정연 윤미선 이금복 조영식 최진 희 씨 등이 권사로, 김방자 김임순 전명도 씨 등이 명예권사로, 김양현 김훈희 나무석 조현수 조윤진 조나 단김 제시카김 대니김 켈리김 미셸 김 조셉박 그레이스박 데이빗조 에 리조 임마누엘조 씨 등이 집사로, 원계선 씨가 명예집사로 임명된다.

또한 26일(수) 오후 7시30분에는 풀러신학교의 피터강 교수를 초청 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10월 3일(수) 오후 7

시30분 '소리엘' 지명현 목사 찬양 및 간증집회 △12(금)-14일(일) 장 학봉 목사 부흥성회 △14일(주) 오 전11시 총동원 전도주일 △11월3 일(토) 정오 설립기념 타인종 이웃 초청잔치 △18일(주) 오후1시30분 교구별 장기자랑 대회 등의 행사가 이어져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반 은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일굴 것을 다짐하게 된다.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는 1982 년 5월 10명의 교우가 김건도 목사 의 집에서 첫 예배를 가짐으로써 시 작됐으며, 1997년 윤선식 현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래 탄탄한 중형교 회로 성장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310)973-5106로 하면 된다. www.kumranumc.org 〈정리: 박준호 기자〉

매일 기도회와 매월 정기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9월

일시: 2012년 9월 20일(목, 저녁) ~ 27일(목, 저녁)

(오전10:30, 저녁7:30) 주일제외

미주 갈唱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唱산 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 으로 성도와 교회를 심기끄자 세워졌습니다. 코리 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b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땐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이정과 저녁으로 배일기도회와 배월 조성근 답입복사가 직접 성화를 인도하는 매월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미주의와 자유주 의를 철저히 배작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화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온레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 의 옆집이 있어 하나님의 용답과 은혜회부의 감적, 그리고 세 도운 헌신의 걸단이 있습니다. 색신자들은 몇 년의 선양이 앞 당겨지고 적분자들은 전고하고 성숙한 산앙을 지나게 되며 사석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게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자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절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자부터는 달라집니다.

• 영혼과 심신, 생활의 본 영격 충전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영혼이 변화되고 성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뭘 쓸 믿습니다

• 기도의 불길이 점화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Tel (818) 306-4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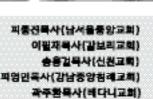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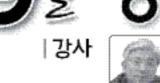








유관제목사(성광교회)



정기 기도성회



갈멜산금식기도월(만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고경임고수 /GST대표/KWMA 운영에사 종실대학교(Th.M/Th.D.cand)/미국ORU(D.Min)

1982년에 시작된 갈렉산금식기도원은 365일 언제나 기도심회가 있으며 매주 꼭, 금, 모요있은 철어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재 갓맥산 금식기도원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해와 개교회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성도 님들의 사장으로 매주간 약 2만 5천여 명이 참석하여 은 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망과 기대에 부 용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은 점손하고 신살하게 감 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활당한 그리고 시대가 필요보 하는 갈맫산 급식기도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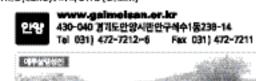
국내선교 : 이자립교리후원, 신학성훈련지원, 경찰선교, 호스피스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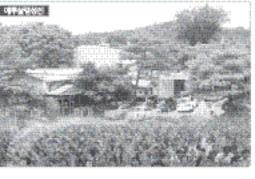
국외선교 : 교회개혁, 건축, 사역지원 모스크바(임국원), 우즈테리스탄(김봉석, 강필주), 브라쥴(강구축), 짜라과이(전장선, 곽성건), 감비아(유재종), 니콰로쬬(홍사순), 역시코(우상백), 일본(김병태), 응골(김행동, 박승호), 내활(이상택, 경제구), 뉴질랜드(기호장), 호주(경주꽃), 배트남(이영식), 연도(허승운), Hop선교회,대신세계선교회

언도선교 : 교회개최과원지사역자훈련, 사역자원 교회: 호슬교회(데벳), 코임바루르교회(조지), 이루드교회(산토쉬) 삼겠코희(양마누엘), 마드라스교회(슈레쉬), 크리스냐?[리 교회(엘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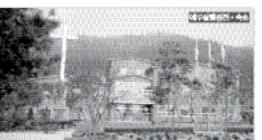
언도기도원: 타일라무주호술

선교사위문품보내기 1996년부터매년 성단점이한국에서파송된각교단과선교 단체들에소속된2천명의해외선교사님들의가정이선교 위문품을보내드리고있습니다.





417-853 인천광역사강화군양도면하일래 26-3번자 Tel: 032) 937-9724--6 Fax 032) 937-9727



마음쯧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거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마다 설명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 용답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처소가 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2 주요교단 총회 뭘 다루나…

이달부터 시작되는 주요 교단들의 올해 총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다. 1912년 한국의 장로교 총회가 처음 설립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 이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교의 지난 1세기를 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는 올해 총회의 키워드는 '통합'과 '자정', '교회수 호' 등으로 모아진다. 국민일보 종교국이 2012년 교단 총회의 핵심 의제 들을 짚어봤다.

수년 동안 거론돼 오던 장로교단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 이다. 예장합신 및 예장고신 총회 는 지난 1년간 함께 활동해온 '교단 합동추진위원회' 연구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보고한다. '통합전권추진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는 예장 백석과 예장대신 총회도 교단 통합 문제가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교단 통합을 선언한 장로교 5개 '개혁' 교단은 통합 총회를 열 어 통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집 중 논의할 예정이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한국교 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정리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교회연합기구 문제가 대표적이

실운용 문제가 '핵폭탄급' 이슈로

취할지 주목된다.

올해 총회에서는 주요 교단들의 재정 운용 문제가 도마에 오를 모 양새다. 예장통합은 총회연금재단 이 안고 있는 수십억원 규모의 부 떠올랐다. 연금재단에는 현재 1만 여명의 목회자가 가입돼 있다. 예

지만 나머지 교단들은 어떤 입장을

'교회수호'

장합동은 아이티 구호금 전용 의혹 문제와 총회세계선교회(GMS) 기 금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장대신은 30억원에 달하는 총회 부채의 지불 및 상환을 위한 세례교인 의무부담금' 제정안을 상 정했다. 예장백석은 총회 헌금 및 지원금 축소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 책을 다루는 등 총회 살림살이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올해 교단 총회는 외부의 공격으 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 스스 로 깨끗해지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기회도 될 전망이다. '종교자유정 책연구원(종자연)' 등 교회 공격 세 력에 대한 교단의 대응방안도 논의 된다. 예장대신 정치부는 '종자연 의 반기독교적 활동에 대한 강력한 내용의 성명과 대책을 교단 차원에 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의 안을 제출한 상태다. 불교 단체인 종자연이 정체를 숨긴 채 기독 사

에 힘 모은다

학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하면서 기 독교를 공격하는 데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제안 이유다. 예장 합신 등은 대표적인 이단단체인 신천지' 집단에 대한 주의를 촉구 하는 홍보 활동 방안을 다룬다.

이밖에 예장합동은 선거제도와 관련, '직선제+제비뽑기' 제도로 보완하는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키 로 했다. 기장은 차기 총무선거와 관련해 직선제 논의가 이뤄질 예정 이며, 예장대신의 총회 윤리위원회 상설화 헌의안도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정부, 미션스쿨 종교교육권 보장하라"

17개 교단장 · 300여 기독학교장 · 교계단체 대표

교계 지도자와 기독교학교장들 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에 기독교학 교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종교교육 권을 보장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에게 기독교학교를 사찰케 하고 교육당 국이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권을 침 해한 것에 대해 교계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며 분연히 나선 것이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에 참 여한 17개 교단장과 전국 300여개 기독교학교장, 교계단체 대표들은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종자연 문제 등 일련의 사건을 한국기독교 사학 역사상 가장 심각한 탄압사태 로 규정하고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 지 정책제안, 서명운동, 법적투쟁 등 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종교편향대책위 명의

의 성명을 통해 종자연에 대해 기독 교학교 불법사찰을 중단할 것을, 인 권위에 대해선 종자연과의 불공정 계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 립고교에까지 종교과목의 대체과목 개설을 강요한 것을 월권(越權)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문 화체육관광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교계의 시정 요청을 더 이상 묵살하 지 말라고 경고했다.

'통합'

다. 올 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

기총)에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이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다. 예장

통합과 예장대신, 예장백석 등 장

로교단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은 한기총 탈퇴 여부 및 관계 설

정, 한교연 가입 여부 등에 대해 결

론을 내기로 했다. 내년에 열리는

WCC(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

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가입 교

단인 예장통합과 기장 등은 WCC

총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

과 함께 협력방안을 결의할 예정이

참석자들은 미션스쿨에서 일부 학생이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문제 는 학교 평준화 정책의 강행 때문 이므로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학원 교수는 "학생들이 강제로 종교 교육을 받지 않고 종립학교도 학교 의 성격을 이해하는 학생들만 가르 칠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 제도 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

화 정책에 따라 박탈당한 학생의 학 교선택권과 종립학교의 학생선발권 을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용태 변호사도 "교육기 본법에 '사립학교(종립학교)는 특정 종교를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 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선지원 후추점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 정해 종교교육권을 확실히 보장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교자 로 나선 이철신 대광학원 이사장(서 울영락교회 목사)은 "우리 방식으로 학생들을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 테니 정부가 방해하지 말고 그

냥 놔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남택 명지고 교장은 최근 한겨 레신문에 '수업 대신 할렐루야… 학 교는 종교감옥'이란 악의적인 제목 으로 명지고가 다뤄진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밝혔다. 한겨 레는 제보한 학생이 "신앙부흥회에 참여하려니 너무 괴로웠다"고 한 것 으로 보도했지만, 황 교장은 "제보 학생은 오히려 부흥회가 좋았고 감 동적이었다고 고백했다"고 반박했 다. 황 교장은 "일부 언론은 사립학 교가 설립이념 구현에 노력하는 것

을 불법단체 활동인양 보도하고 있 다"며 "이는 학생인권 존중이 아니 라 사립학교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근본주의연구소 문병길 소장 은 한겨레의 명지고 관련 기사가 나 온 직후 종자연이 명지고에 시정요 구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황당하 고 무례한 행위"라며 "종자연 같은 안티기독교 세력은 다양한 분야에 서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다"고 우 려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 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기독교학교 들이 종자연의 조사를 거부하겠다 고 하니까 최근 곽노현 서울시 교육 감은 서울시 모든 종립학교에게 자 체적으로 종교교육 실태를 보고하 라고 지시했다"며 "종자연의 활동은 시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종자연의 최종 목표는 모든 분야에서 법으로써 기독교의 선교 를 막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편 승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종교 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우 리는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칼뱅 정통개혁주의신학 계승 · 발전 예장합동 총회설립100주년 기념일 감사예배

[미션라이프]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이 1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총회설립100주년 기념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칼뱅주 의적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1912년 9월1일 오전 10시30분 평양신학교에서 조선예수교장로 회 제1회 총회를 개최한 예장 합동 은 정확히 100년 만에 역사적인 감 사 예배를 드리고 미래를 준비하 는 교단이 될 것을 천명했다.

역대 총회장단과 총회임원, 교단 주요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예 배에선 총회장 이기창(전주북문교 회)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100 년 전 44명의 선교사와 52명의 한 국인 목사, 125명의 장로 앞에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한국명 원두우)가 초대 총회장 자 격으로 섰던 그 자리에서 이 총회 장은 100년 역사성을 안고 신앙선 배의 모범 따라 정통보수 개혁신 앙을 전파하자고 독려했다.

"예장 합동의 지난 100년 역사 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 간으로 신앙선진의 수고와 피 값 으로 지켜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선진 과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의 배가운동, 건강한 나라세 우기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이 총회장은 "앞으로 신앙과 신 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종교혼 합주의와 자유주의, 세속주의를 막아내야 한다"며 "다음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선 다음 세대를 말 씀에 의지해 경건하게 세워나가 고 성령충만한 교회, 민족의 평화・ 복음통일을 이루는 총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배에는 김준규 서기행 목사 등 전 총회장단과 정준모 하귀호 고영기 이성택 김재호 황규철 목 사, 이완수 김권중 윤선율 정회웅 장로 등 교단 주요 인사가 참여했 다. 특히 100년 이상의 교회 역사 를 지닌 산정현교회와 승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관선, 박상훈 목 사가 교단 역사와 미래를 위해 기 도했다. 참석자들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을 부르며 지 난 100년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이 자 사랑임을 고백했다. 예장 합동은 오는 17일 대구 성명교회에서 개최 되는 97회 총회에서 총대 1530여명 이 참석하는 총회설립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

예장 합동은 1만1456개 교회 295만3000여명이 소속된 국내 최 대의 교단이다. 1959년 예장 통합과 분열된 이후 62년 총회50주년 기념 대회를 개최하고 83년 총신대 신대 원 양지캠퍼스를 세웠다. 83년 총회 회관을 건립했으며, 98년 총회세계 선교회(GMS)를 설립했다.

KBS. 성전환자 토크쇼 교계단체 폐지촉구 서명운동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한국성결 협회, 에스더기도운동, 바른교육전 국연합 등 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 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부추기는 KBS 반대 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 희 교수)이 오는 6일부터 방영되는 KBS JOY의 성전환자 토크쇼 'XY 그녀'의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XY 그녀' 프로 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될 경우 KBS 시청료 납부거부 1000만명 서명운 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 의도 KBS 앞에서 '트랜스젠더 부추 기는 KBS 저질방송 중단촉구 전국 학부모 기자회견 및 KBS 시청료 납 부거부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김인규 KBS 사장과 김영국 KBS JOY 사장에게 항의서한을 전 달했다.

단체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 는 공영방송 KBS 의 자회사 KBS JOY가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선정 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로 시청률을 높이려는 것은 안 된다"며 "인기 개 그맨 신동엽과 동성애자 홍석천을 진행자로 내세우고 성 전환자를 대 거 출연시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 키는 저질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XY 그녀' 제작진은 KBS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성 글이 잇따르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 는 글을 보고 반대로 더 프로그램을 향한 의욕과 열정을 갖게 됐다'는 발 언(8월 30일자 스타뉴스)을 했는데 이는 다수 시청자의 의견을 무시하 는 처사이며 방송의 제작의도를 의 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동성애 조장 프로그램이 웬말인가" "XY그 녀 방영금지 요청" "동성애 조장하 는 XY프로그램을 꼭 해야 시원하시 겠어요"라는 비난의 글들이 줄을 잇

신천지 설문조사 내세워 접근

학복협 '이단대처네트워크' 세미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가' '유월절 을 지키고 있는가'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늘어머니는 누구인가' '침례를 받았는가'. 만약 설문조사 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절대 응하지 말라. 신천지교회는 설 문조사를 내새워 접근한다.

3일 서울 남산동 청어람에서 열린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 '2012 가을학기 이단대처네트워크'세미 나에서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 소 강동상담소장은 "신천지는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뒤 성경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한다"며 "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할 땐 담임목사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고 임하라"고 밝혔다.

'이단 교리대처 방법'에 대해 전한 신 소장은 20년간 신천지에 깊이 간 여했으며 2007년 신천지의 이단성 을 폭로, 한국교회에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탁지원 은 신천지 외에 큰믿음교회, 아이 합(IHOP) 신사도운동을 한국교회 가 새롭게 경계해야 할 이단으로 언 급했다. 탁 소장은 "지금 한국교회 가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 책 마련에 부심하지만 교회들이 각 계 전투로 대항하는 것보다 연합된 기구를 만들어 힘을 모으는 게 필요 하다"고 제언했다.

학복협 이단대처네트워크는 대학 캠퍼스들의 이단·사이비 문제를 돕 기 위해 현장의 간사들을 중심으로 매년 봄·가을 정기 세미나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장총,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대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 따른 예배와 성찬식, 죄책 고백, 공 표회장 윤희구 목사)가 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 최하고 하나 된 장로교회를 선포했 다. 27개 장로교단 2만여명의 성도 들은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 로회로 시작한 한국장로교회의 100 년 역사성을 자축하고 새로운 100 년을 기대했다.

'세상의 빛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백년'이라는 주제로 대회에 서 참석자들은 같은 장로교 신앙에

동체를 위한 공동기도 등을 드리고 '한국장로교회 새 100년 선언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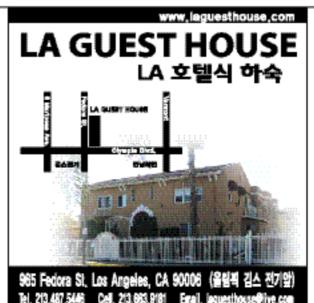
한장총은 선언문에서 "한국장로 교회의 분열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 고 분열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 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라는 한 교단 다체제 출범을 선포한다"면 서 "선(先) 선포 후(後) 조직의 원칙 에 따라 예장 연합총회의 헌법을 각 교단 총회에 상정하고 이를 수락한 총회가 회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龙江 141721 位23"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캠혼석, 젊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이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I, L,A,, CA 90010











E-mail: reformeduniversity@yehoc.com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l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ll.net.

로스앤 잘레스 지사 TEL. 800.347.7057

위성턴DC 지사 TEL. 800.228.2928

세계루 둘이기는 미주크리스천신문#*함*까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김홍도 뭐 (금란교회동사)

기 칼로 자기 가슴을 찔러 자살하 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 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으나 하 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용서하 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 니까, 삼하3:1에 "사울의 집과 다 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 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

는 마음도 없어지고 나라를 위기에 서 구원한 다윗까지 시기하여 죽이 려 한 것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 임을 받다보니까, 교만하여져서 결 국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구세주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최근 '성범죄 사건'과 '묻지마범죄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몹시도 불 안합니다. 이들 범죄자들은 무엇보 다 정서가 불안하고 시기심이 극에

때문에 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마귀의 생각에 사로 잡혀 있는 한 그 교회는 부흥될 수 가 없습니다.

낍

칼 막스(Karl Marx)가 혁명을 일 으키게 된 동기도 그의 두 딸이 먹 지 못하여 굶어죽었기 때문에 가진 자를 미워하게 되었고, "자본론"이 란 책을 쓰고 공산주의혁명을 일으 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 이 있으면서도 굶어죽게 내버려둔 가진 자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 경주의 유명한 최부자는 "흉 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또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의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5:1-4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 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 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 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 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 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 이 행복하고 복 받는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65년 제가 결혼할 때 가난한 사람은 철 캐비닛을 가지고 시집 오는 것이 있었는데, 제 아내 될 사 람에게 철 캐비닛도 가져오지 말 고 양은 트렁크 하나만 가져오고 양복도 구두도 원치 않는다고 했 더니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 는지... 그 대신 수요일 예배 끝난 후 전깃불도 없는 시골예배당에서 면사포도 없이 입던 옷 입고 결혼 식을 올린다고 했고, 물론, 다이아 반지도 없고 이다음에 여유가 있어 도 안 사줄 것이니까 괜찮겠느냐고 했고, 결혼식 올리자마자 그 강단 앞에 엎드려 철야기도하고 신혼여 행도 안 간다고 했더니 다 좋다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요사이 부부간에 사돈 간에 패물 과 예단 때문에 다투다가 결혼 후 에도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 이 파탄된다고 하니 얼마나 통탄 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고부간 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결국 이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원

못하고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자 기 재산을 들여 예배당을 지었으면 아쉬워도 그 교회를 떠나야 자기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됩니다. 시 기가 작용하면 마귀만 좋아하고 교 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목사가 은퇴하고 아들이 담임자가 되면 "세습"이라고 공격 하고 비난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습하듯이 자격이 있거 나 없거나 물려주고 물려받는 교 회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 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제사장 이 됩니다. 자격도 없는 아들을 억 지로 담임목사 시키는 아버지가 어 디 있으며, 그것을 받아주는 교인 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업의 주인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듯 이, 교회건물이나 헌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건물이나 재산 은 목사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입니다. 생활비도 교회가 책정 해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담임목 사가 봉급을 제 맘대로 정할 수 없 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북한의 3대 세 습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교 회의 정당한 후임자는 세습이라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 다. 목사도 성직자이지만 육성을 갖고 있는지라 자기보다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후임자가 들어오면 잘 해도 불편하고 못해도 불편합니다. 시기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당회나 총회에서 합당하다고 결의되면, 아들 아니면 사위라도 후임자가 되면 아들이 설 교할 때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아 버지 마음이 흐뭇하고 아버지가 존 경받고 사랑받으면 아들도 싫지 않 습니다. 뒷받침해주니까 힘이 되고 안전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지는 해요, 아들은 뜨는 해니까 아들이 존경받아야지" 또는 "저는 흥 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노라" 하는 심정으로 시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 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후임 자가 되면 서로 시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편할 수 없습니다. 렘20:10 에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 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 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감리교단에서 감독회장을 뽑지 못하고 파행을 거 듭해왔던 것도 한 마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한 가문에서 "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가 다 감독 회장을 해먹게 두느냐"고 총회 전 부터 방해하다가, 44% 가까운 득 표를 했음에도 억지 방해 공작으로 취임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들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 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 여 가니라"한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 실 것입니다.

〈16면으로 계속〉

1.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기나 질투의 감정은

일상적인 감정의 변화처럼 여기고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러나 시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가

져옵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

은 자를 멸하느니라"라고 했고, 잠

언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

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

다면 왜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결

과를 가져올까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보면 아담 (Adam)과 이브(Eve)의 자식 중 동 생 아벨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 며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흠향하시 고(히11:4), 피 한방울 없이 제사드 린 가인(Cain)의 제사는 받지 않으 심을 보고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농기구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 다. 인류 역사상 첫 번 살인죄가 시 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욥5:2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 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2.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 려 할 때 악신이 역사했고 결국 자 살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Goliath)을 물맷돌로 쳐 죽인 다음에 부녀자들이 기뻐 뛰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 은 만만이로다 한지라"(삼상18:7) 하고 노래할 때에 사울의 마음속 에 시기심이 생기면서 악신이 들 어가 미치게 만들고 구국공신이며 자기 사위인데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시 기는 마귀의 역사이므로 시기심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경 계할 것은 물론이고, 남에게 시기 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야 합니다.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한 사울 (Saul) 왕의 마음에 악신이 역사하 여 구국공신이요 자기 사위인 다윗 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 쟁에서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자

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한 말씀대 로 사울의 집은 망하고 말았습니 다. 시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 과를 가져왔습니까?

잠14:30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

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

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

3.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직접적인 동기는 서기관과 바리새

인들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나사렛

시골사람 목수의 아들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많은 군중의 마음을 사로

잡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들을 살리

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충천

하니까, 그들은 사실을 그대로 반

아들일 수는 없어서 시기심이 가득

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심했

마27:18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

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

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세주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무서

운 죄입니까? 시기심을 가지면, 올

바른 판단을 못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은 선이라고 잘못 판단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수줍을

만큼 겸손했으나 왕이 된 다음부터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

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다고 했습니다.

기 쉽습니다.

달해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행동으

욥기 5장 2절, 잠언 14장 30절 로 표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기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

4. 시기는 나라도 멸망케 합니다

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새

삼 느끼게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공산주의자들 은 가난한 무산대중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부자들, 재산가들(부르 주아)을 시기하게 만들고 증오하 게 만들어서 가진 자의 재산을 빼 앗고 강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칼 막스(Karl Marx)가 1848년

공산주의 혁명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 농민들이여 모든 자본 가의 재산과 공장을 빼앗아 공동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선포하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혁명완수를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 하고 방화도 거짓말도 불사한다" 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자들은 살인도 도적질도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그 동기부터 사탄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주체사상)에 물든 종북・ 좌파들은 가진 자, 부자, 재벌들을 어찌하든지 미워하고 죽이고 해체 하고 강탈하려고 합니다. 이 사상 에 물든 사람들은 남이 잘되기 때 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못살게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사상에 물든 목회자들도 남의 교회가 부흥되기

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 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

습니다. 최근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 도 방문을 빌미로 사실상 우리나 라를 상대로 '외교전쟁'에 나섰습 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로 엄연히 우리 한국 영토인데 도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 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 로 일본보다도 더 성장하여 IT강국 이 되었고, 런던올림픽에서도 금메 달을 일본보다도 더 많이 따내고, 특히 축구 3, 4위전에서도 패하게 되니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게 되어 일종의 시기심이 발동한 것 입니다. 이처럼 국가 간에도 '시기 심'이 얼마나 큰 죄악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5. 시기는 가정도 파괴시킵니다

이혼하는 가정 중에 결혼 예물 이나 예단 때문에 양가가 다투다 가 결혼은 했으나 그 후유증 때문 에 결국 파혼하거나 가정이 파탄되 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모든 가구, 전자제품을 다 완비하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 까? 사글세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작은 아파트가 되고 더 큰 아파트 가 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 패물 얼마 더 받았다고 그 가정

인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의 사랑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 같고, 아내 는 남편이 결혼했는데도 마마보이 처럼 엄마의 품을 못 떠나는 것 같 아서 고부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 하다가 파혼, 이혼하는 경우가 많 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시어머 니도 마음을 내려놓고 아들이 한 여자의 남편임을 인정하고, 며느리 는 평생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 해 키운 시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 고 양보할 줄 알면 가정이 파괴되 지 않을 것입니다. 원인은 서로 시 기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

6. 시기는 교회부흥도 저해 합 니다

어느 교회나 특히 시골교회에는 소위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훌륭한 교인이 들어오면 기득권을 빼앗기고 세도를 부리지 못하게 될까봐, 좋은 교인이 들어 오면 비방해서 내쫓는 경우도 있습 니다.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세상직위도 높은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의 어른노릇 을 했는데, 대등한 사람이 들어와 목사님과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존 경받으면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편 치 않아서 파당을 짓고 편 가르기 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기독문학소설

时到至74年3(11)



정총해 박사 (문학인)

[편집자]이번 주부터 새로 연재되는 "여리고로 가는 길"(정총해 저)은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린 같은 이름의 소설집으로 이 중에서 몇 개의 이야기를 골라 게재한다. 저자 정충해 박사는 일찍이 도 미해 미술로 석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으며 은퇴 후에는 모국어로 작품쓰기를 시 작 지난해 본 소설로 문단에 등단했다(16면 '책소개' 참조).

아버지 손진태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저녁식사 가 끝나자 거실 캐비닛 위에 얹어놓은 다갈색 약병 에서 캡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더 니 물 한 컵을 들고 와 아들 현수에게 내민다. 약을 먹으라는 것이다. 현수는 꼼짝 못하고 입에다 약을 집어넣고 물을 꿀꺽꿀꺽 들이키며 삼켜 버린다. 올 해 열네 살인 현수는 현재 미국의 대도시 LA의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현수의 학교 수업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학교 출 입구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이제나저제나 아들 이 문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아들을 데리고 정신 과 의사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아버지는 차창을 열 고 한참 학교 본관 출입구 쪽을 지켜보았다. 드디어 눈에 익은 검은 윗도리와 청바지를 입은 현수가 나 타났다.

현수는 동양 아이라 그런지 아버지 눈에는 함께 걸어 나오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체격이 작 아 보였다. 체격이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오늘따라 얼굴이 몹시 수척하고 기죽은 아이처럼 힘이 없다.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다.

현수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면서 아버지는 영 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입버릇처럼 훈시를 했다.

"현수야, 제발 좀 얼굴을 펴고 다니렴."

"아빠, 왜 자꾸 나더러 그런 말을 해요?" "우울하게 보여 그러지, 몸에 어디 아픈 데가 있 냐?"

"아뇨.'

- "그럼 왜 늘 그렇게 우는 상을 하고 있어?"
- "그럼 웃을 일도 없는데 웃고 다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찡그린 얼굴을 좀 펴고 힘을 내라 는 거지."

"아빠, 난 크라운(광대)이 아냐.'

아들을 격려하는 말이 자꾸 켕긴다. 2년 전부터 아 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아비로서의 자책감을 억 누를 수가 없어서다.

진태는 어머니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뒤, 미국 LA에서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의 주선으로 아 내와 어린 두 살배기 아들 현수를 데리고 미국에 투 자이민을 왔다. 그새 12년 전 일이다.

다행히 친구와 동업을 한 사업이 잘되어 진태는 이민자로 돈을 꽤 벌었다. 그렇게 사업가로 성공한 진태가 자기 회사의 여비서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 문이 나돌자, 그것이 가정불화의 불씨가 되었다. 진 태는 거의 매일같이 아내와 옥신각신 싸우다가 2년

전에 그만 갈라서고 말았다. 그 후 이혼한 아내는 금 년부터 직장의 미국 남자와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 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다.

아내와 갈라질 때, 이혼절차로 재산을 내눠 가지 는 조건은 받아들이기가 쉬웠다. 예를 들면 주택은 시가의 절반을 아내에게 지불하고 집 소유권은 남 편이 가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자 식을 소유물처럼 둘로 나누기는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결국 아홉 살 먹은 어린 딸은 아내가 데리고 가고 열두 살 되는 아들 현수는 남편이 양육 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현수가 정신의를 만나는 날이었다. 아들을 병원 에 데리고 가려고 진태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 에 돌아왔다. 현수가 책상에 엎드려 훌쩍거리는 것 을 겨우 달래어 병원에 데리고 갔다.

환자 대기실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호출을 받았다. 진태는 아들을 데리고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여느 때와 같이 먼저 보호자인 아버지의 보고를 듣 고 잠깐 환자와 대담하고 나서 약 처방을 새로 해주 면서,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약을 제 시간에 꼬박꼬 박 먹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다. 새 처방이라고는 하 지만 현재 먹고 있는 처방약의 도수만 두 배로 높였 을 뿐이었다.

약을 찾아 집에 돌아온 진태는 늘 하는 식으로 아 들에게 물 컵을 건네주면서 알약을 두 개 꺼내어 내 밀었다. 그러나 아들은 물 컵을 밀치고 약물복용을 거부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병이 더 근본적인 치료 를 해야 함을 알지만 그 치료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어서 곤혹스러워 할 뿐이었다.

다음날 진태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신의는 다시 나타난 현수를 진료 실에 데려가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현수를 집에 보낼 수 없다고 했다. 며칠간 정 신병 환자실에 입원시켜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아들을 격리실에 입원시키고 난 뒤, 진태는 회사 로 가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회사 사무실에 들 어서자마자 오랜만에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호소했다. 막 입원시킨 현수의 정신상태가 심각하니 제발 좀 한 번 찾아가 위로해 주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진태는 회사 일을 마치는 대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놀랍게도 현수는 밝은 표 정을 짓고 의자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아들에게 어째서 얼굴이 그리 환하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음 식을 해 가지고 자기를 보러 병원에 다녀갔다는 것

금만교회

N. (853-485-7000, Fox (853-486-5776 1811 887 886-8 340-0131-250 삼보교회

Tel (62) 1945-4507-0, Fee (02) 2607-6506 484 1867-838 162-3 (150-653)

승등교회

답임목사: 검정면

답입목사: 박장윤

답임목사: 박상훈

주합1부에서: 오전 9:00 무실하여서: 오전 11:00 주입3부에서: 오후 1:20 주입제서라는 오후 3:00 수요에서: 서네 7:00

〈다음호에 계속〉

선교지 편지

할렐루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는 동역자님 그리고 CAMM 회원님! 오늘은 테소미망인 병원(Teso Widows Hospital)을 하게 된 배경과 자 료 그리고 진행에 대한 간략한 자료를 보내게 됨을 주님께 감

사드립니다. 지난 해 소로티에 처음 와서 선

교센터 자리를 물색하던 중 새 건물 임에도 불구 하고 굳게 잠겨 있는 한 건물을 발견하였는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해도 주인을 만날 수가 없었 으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건물을 제게 주시거나 사용할 수 있 도록 허락하신다면 여기 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는 저의 선교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불가 능한 것같이 보이던 그 빌딩은 테소미망인회 (TWA)의 소유였고, 한 미국인 선교사가 그 분 들을 위하여 병원으로 건축한 것인데, 이제 함 께 병원의 운영과 선교 를 하기로 합의함으로 써 저희 NGO인 "동부 아프리카지도자개발원 (LDIEA)"이 병원의 운 영권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사역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 니다. 이곳 테소 부족은 과부(반드시 남편과 사 별한 분))와 고아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랑과 도 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 52명의 고아들을 개 인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만 턱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는 미망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기 회를 주시는군요. 그저께 TWA 임원들과 완전히 합의를 하고 변호사와 및 지역 지도자들의 입회하에 M.O.U를 체결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병원건물은 테소미망인회 (TWA)에 두고 운영권은 저희가 갖기로 했으며 회원에게는 무료 진료나 최소의 진료비로 우선 진료의 혜택을 주고 일반 주민 들에게는 진료비나 입원비를 저 렴하게 받아 병원 운영비로 사 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현재 테소미망인협회는 32,000 명으로 회장은 목회자 부인으 로 남편인 전도사님이 97년 교 통사고로 소천하고 본인이 교회 목회와 이 과부협회를 기독교 복음으로 이끌려고 애쓰시는 분 입니다. 이들 회원들이 선교대 상이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







이 소로티 타운에는 무슬림이 많아 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 기는 시내 푸줏간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시외 길거리에서 판매하 는 실정으로 이슬람 병원, 가톨 릭 병원 심지어 힌두교 병원도 있지만 개신교 병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작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여깁니다.

건물이 아프리카 식이라서 우리 와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새

풍경중앙교회

Tel (05)3200-0431-5, Fee (05)3200-0450 2-10-6 Okubo Shinjata-ku, Tekyo, Japan

성실교회

THE (82)2-464-4638, Pair 2027-1008 48 887 4828 221-40 (142-072)

신촌교회

16(10212-760-6575, 시작(1212-130-567) 서울 대표구 노고선을 49-45

담임목사: 이강현

담임목사: 김영복

담임목사: 이정의

건물이고 상당히 괜찮아서, 아 마 좋은 의사 분들만 오시고 의 료 장비를 잘 갖춘다면 이 지방 의 최고의 병원이 되리라고 확 신합니다.

디자형 건물에 65병상이라 규 모면에서도 국립 소로티 병원 다음이며 입원실마다 수세식 화 장실 샤워실 그리고 천장용 선 풍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건물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채플실(예배당), 수술실, 의료진 숙소, 의료 장비는 필요 합니다.

계약은 최초는 20년이고 다시 연장하는 것(특별한 문제가 없 으면 계속 자동 연장으로)과 중 간에 우리가 포기하면 모든 것 을 무료로 넘기고, 자기들이 일 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투자

> 에 대한 변상을 하는 것으 로 했으며, 저는 운영이사 회에 그 분들을 포함시켜 파트너십으로 일할 것입 니다. 우간다 문화와 시스 템은 M.O.U에 대한 법의 보장이 강합니다.

>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 자님과 CAMM 회원님! 혹이라도 CAMM이 동역 할 수 있는지요? 혹이라 도 은퇴하신 분들 중에 주 님과 아프리카를 사랑하 셔서 오셔서 봉사하실 분 들이 없겠는지요. 저도 의 료분야에 아는 분들께 연 락을 드리겠지만, 의료선 교 단체와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의료인이 아닌 것 아 시오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계속적인 중보기 도 그리고 지도와 협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그 외에 저의 사역은 △목 회자 교육 및 훈련센터 건 립 △부족언어 오디오 성 경 제작 및 보급 △초등학 교 내에 예배당 건축하기 △야외전도 집회를 통한 선교 △이동도서관 운영 등 사역하거나 준비를 하 고 있으니 중보기도 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학 은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 이므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시작하기로 하고 현

재에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 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장로님 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사역 위에 가득 하시길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샬롬! 우간다 이상철, 고유덕 선교사 이메일: Isc9366@hanmail.

든든한교회

Tel (65(MT)-4985~3, Fex (65(MT)-4382 (年)4(5-43) 著기三 五葉科 製化菓子 養化量 1070~1

성일교회

阿斯斯斯 新斯斯斯斯

안암 제일교회

답입목사: 장향의

답입목사: 결정본

주합·부대로 오픈 등 20 수업하여로 모든 5:00 수업하여로 모든 11:00 수요하기 모든 7:30 수요하기 모든 7:30 대한대로 오픈 5:10 대한대로 오픈 6:10

답입목사: 조 운

조합 1 보이라 : 모인 8:30 주합2학이라 : 모인 10:00 유합2학이라 : 모인 11:30 유합2부대한 : 모든 2:00 유럽모두대한 : 모든 2:50 수요대학 : 요른 7:30 삼다 15 및 : 모든 8:30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답일목사: 노래현

강남중앙감리교회

Tel (02)826-7767, HP (877/897-4259 서울시 서울구 보호함 1500-20 로마한인교회

답임목사; 한명우 수요제대: 오루 8:00 서버기도: 오전 6:00(제일)

TH, 20-08-077-3593, 33-349-359-1776 33-00-643-8779/2489 VIA DET GUNTTL! 33-38-00177 ROMA, ITALY 수영로교회 답임목사: 이규현

Tel (82751-740-4590, 4559-4), Fex 740-4560 Mellitali Milital 528 (406-1, 1512-424)



담원복사: 지용수 Tel (1066)219 - 6550. Faz (1065)210 - 5510 (1641-370)256 - 8534 - 2137 - 8725 - 615 1886, yangkag, org



왕성교회

Tel (1272—658—4873, 337—254—7294 사용시 중약구 선명분중 1947—54 (167—029)

군포제일교회

244 Bes 670-102

맹성교회

Tel (1975 - 440 - 9000) Fac (1975 - 440 - 9000 HBA (1987 - 9718 - 550 - 4, (154 - 850)

수정교회

답입목사: 권퇴진

조됩(부의표: 모인 7:00 취임부의표: 모든 8:00 취임부의표: 모든 1:00 취임부의표: 모두 1:00 취임부의표: 모두 2:30 자세계대: 오투 7:30

답입목사: 결삼환

주당1부의왕: 오전 7:20 주당2부의왕: 오전 3:20 주당3부의왕: 오전 11:20 주당4부의왕: 오전 1:20 시작2점: 오전 4:30 (15) 전 4:30

답입목사: 조일레

주입1부에서: 오픈 7:30 이입2부에서: 오픈 8:30 추입3부에서: 오픈 11:30 주입4부에서: 오후 1:30

담임목사: 결자연

장위제일교회 담염목사: 김기원 주입1학에비 요천 7:30 수십2학에박 오천 11:30 수요해박: 오루 3:30 유배기위학: 오픈 5:30 윤요십이기문화: 오루 3:30 Tel.(02)642-5981, Fax.(52)642-6852 (136-531) 서울시 상육구 중위3종 79-12

Tel (03(25)-1904, Pex (05(25)-1010 경기도 수많시 영화구 미리를 433-2 주안교회

김포제일교회

THE REAL PROPERTY AND ASSESSMENT AND ASSESSMENT ASSESSM

사에멘교회

福田世界(は500mm~1000)、最大は570mm~1077 お7年 春日月 中村子 春日春 577日月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감동청

답입목사: 소강석

주합(부: 오픈 7:50 수업하는 오픈 2:30 수업하는 요한 11:00 수업하는 오후 12:30 수업하는 오후 2:30 (최근이를 위한 현대에서)

담임목사: 김성결

주입(부명하: 요전 7:00 주입(경영화: 요전 9:00 주입(부명하: 요전 11:00 주입(부명하: 요구 2:00

담임복사: 나쁜일 주입기자에의 2년 6:00 수입2부대의 2년 8:30 수입2부대의 2년 10:00 수입2부대의 2후 12:00 주입2부대의 2후 2:00 주입2부대의 2후 4:00 수입2부대의 2후 4:00

76/32/32-627-1009 別長書館以 李善子 近海4書 294-10(435-638)

창디교회 담임꼭사; 최용도

74. (投資・442-100年、小時(かけ)記・シータは・1900 場番 事務至子 社芸 (著・03-2、(150-051)

광주신일장로교회

76 (002)529-0418, Fee (002)522-4854 500-170 #3#44 #7 #8# 600-1874

성문교회

Tel.(NO)2-1968-31일(~5. (NO)2-2964-31일(사용시 설명은 폭풍제 320 (199-628)

신길교회

답임목사: 한기승

주합1부에에 보면 #130 주입자이에: 요전 11:00 수단기도에: 오후 7:00 유역기요의: 요전 6:00

답입목사: 황정식

주인(무례비: 요천 8:00 주입안에비: 요천 11:30 주입안원이비: 오후 3:30 사이 (무례비: 요천 5:00 사이2무에비: 요천 6:30

답입목사: 이십용

Tel.(82)2-482-3535, Pez.(82)2-438-4608 MBA 2987-81558-448-25



Tel (043)276-9131, Fac. (043)272-8154 361-833 848 8454) 8547 A/RR 259-12

담임목사: 어진호 주십1부에서: 요한 7:00 아십2부에서: 요한 18:00 주십3부에서: 요한 10:00 주십4부에서: 요한 11:00 주십4부에서: 요한 11:00

충신교회

76/(52년-792-7740 서울시 옵션구 의용분 352-67 (140-035)

가정사역 칼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스킨십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http://www.chpress.net

지금까지 성실하게 만남을 준비하고,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멋지게 프러포즈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해도 현실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 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러포즈하고 만남을 시작 했을지라도 두 사람 앞에 마냥 핑크빛 세계만 펼 쳐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정말 이 사람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더욱 친 밀감이 생기게 된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두 사 람의 관계가 더욱 든든해지냐 하는 것이다. 아름 다운 교제와 행복한 결혼의 꿈이 이뤄지지 않는다 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만남이 결실을 이루도 록 가꿔 가야 하는 것이다.

1) 혼돈의 문화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청년들

기성세대나 교회에서 생각하는 이상의 스킨십 문제가 우리 청년들 안에 발생하고 있다. 지금 우 데 얻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성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 다.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계 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며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

2)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르다.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 나 우리는 마치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처럼 너무나도 자주 '그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외치며 화를 낸다.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녀가 '왜 그(녀)는 그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갈등을 겪는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성과 만나 면 특히 신체적 접촉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은 같은 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달 라서 서로의 의사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성 심리도 다르다. 예를 들어 남성은 포옹이나

남녀 서로 다른 외모의 특징, 호르몬 작용 이해 경건하고 친밀한 관계 나눌 수 있도록 훈련해야

리는 문란하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잘못 처신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어 둠 속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통 스런 한숨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하는 두 남녀 앞에 놓인 스킨십의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관 건이 될 것이다. 스킨십은 친밀감을 더욱 충족시 켜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관계를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지뢰처럼 작용하기도 한다.

헤어지려고 교제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 국은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 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청춘남녀들은 서로의 어 려움조차도 함께 이겨나가려고 생각하면서 교제 를 시작하지,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교제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육체적 욕망에 끌려 그 유혹을 끊지 못하면 죄의 구렁텅 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 피해자가 될 것 이다.

이제 본격적인 만남을 앞에 두고 있는 남녀라면 두 사람 앞에 놓여있는 친밀감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할 것을 기대하되 그것이 저절로 오지는 않음을 기억하자. 그것은 지킬 것은 지키는 가운

입맞춤, 성적 행위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는 경 향이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사랑의 정서적인 관 계나 감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들의 경우는 보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성 적 흥분을 느낀다. 하지만 여성들은 단둘이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더라도 아직 성적인 관계까지 생 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물론 스킨십이 추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하다 보면 자기 통제력이 마비될 수 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와 같이 어려움에 빠지기 일쑤다. 특히 애무는 성 적인 행동이며, 더 깊은 성 관계로 이어지기 십상 이다. 술을 마신 경우는 더 그렇다. '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지나 치게 믿는 것이다.

또, 남성들은 여성들이 무조건 터프한 남성을 좋아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남성다운 남성은 친절하며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하신 예수님이시다.

남녀는 서로 다른 외모의 특징이나 호르몬의 작 용을 이해하면서 경건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왕이신 하나님 (시93:1-5) 찬138장

권위의 옷과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세계를 견고하게 하시는 왕이신 여호와는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첫째, 그는 세계를 다스리십니다(1). 나라와 족속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활동이 그 분의 손 안에 들어 있 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게하십니다. 만물 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 는 바울의 찬양은 그 왕의 다스림을 본데서 나온 것입 니다. 둘째, 그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2-4). 그 왕의 보

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그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 왕의 다스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셋째, 그는 거룩하십 니다(5). 그는 확실한 증거와 거룩함을 가지신 왕이십니 다. 그의 성품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왕의 거룩성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 일하십니다. 영원무궁하신 그 왕 께 자신을 즐거움으로 드려 그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위대하신 왕 (시95:1-11) 찬352장

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노래해야합니다 (1).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노래로 크게 외침은 그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죄에 서 건지시고 진리의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이기에 찬 양과 영광을 돌려야합니다. 둘째, 엎드려 경배해야합 니다(6). 그 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만유 를 다스리시는 섭리주로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 도하십니다. 그의 백성은 그 분께 항상 엎드려 경배해

크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이 마땅 야합니다. 이것이 모든 활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합니다(8). 이 찬양과 경 배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이 므리바와 맛사에서 행한 일은 모두 교만에서 나왔습 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 니다. 크신 왕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찬 양하는 인생관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 자 리로 나아갑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시97:1-12) 찬507장

공평과 의를 기초로 삼은 보좌에 좌정하신 여호와 께서 만유를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모든 자연법칙의 운행은 물론 만유 위에 자신의 의 를 세우시고 세밀하게 심판하십니다(2-8). 구름, 흑 암, 번개, 산들, 땅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심은 임재하 심으로 자상하게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지구온난화 로 몸살을 앓는 중에서도 그 왕은 세상을 자신의 뜻대 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 왕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

기고 그의 뜻에 순종함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둘째, 언약백성인 시온을 다스리십니다(8-12). 헛된 우상을 제하시고 자기 백성을 모든 난관에서 친히 구원의 손 을 펴시며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의인 을 위해 광명과 기쁨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가난한 마음 (시41:1-13) 찬530장

본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 관한 복을 어떻게 말해줍니까? 첫째, 절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2). 원수의 맹공격을 받은 그가 설상가상으로 중병의 자 리에 시달릴 때(9)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1-4).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병상에서 하나님은 붙 들어주시고 치료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자기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입니 다. 택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의 약속은 영 원히 유효합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4).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악담하던 원수의 궤계 앞 에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곤고한 날 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복됩니다. 가난하고 애 통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마 5:3-4). 그는 원수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사실을 확 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 보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성도의 찬양 (시89:1-18) 찬13장

다윗의 합창대장, 여두둔이 지은 시로 알려진 본문 에 나타난 대로 성도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 까?(15) 첫째, 주의 인자 때문에 찬양합니다(1-2). 인 자란 사랑, 자비, 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실패했음에 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노래합 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둘째 주의 성실 때문 에 찬송합니다(14). 알고 보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신

실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의 행동 이 모든 언약의 기초이기에 다윗은 인자와 성실을 따 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지위를 견고케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의 권능 때문에 찬양합니다 (6-13). 그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한 것은 그의 전능하 심 때문입니다. 창조자요 섭리주이신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임을 생각 할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시89:19-52) 찬133장

의 구원을 탄식가운데 사모합니다. 첫째, 무슨 고통입 니까? 하나님의 진노로(38-45) 그는 원수에게 훼방 당하는 민족적 수난(46-52)을 겪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략으로 포로가 돼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이었 습니다. 둘째,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언약파기로 인 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물 리치고 관을 땅에 던지시며 울타리를 모두 거두셨습 니다(38-45). 마치 엘리시대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

에단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 는 자가 불순종할 때는 밖에 버려진 나뭇가지처럼 돼 버립니다. 셋째,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언약이란 하나 님의 기름 부으심의 보증으로 신약에 신자 안에 성령 의 내주하심으로 성취됐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보 호, 영원한 승리, 영원한 회복을 보장합니다(엡1:13).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합시다.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병법 김항안 지음 교회 성정을 위한 70가지 목회병법 384쪽 영적 부싯돌 같은 실천 목화병법 신국판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타(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싯돌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병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김황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2면 산국판 정가 12,000원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백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김화안 지음 신국환 정가 12,000원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토대회"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웃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김항안 뭐 철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목포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 하대학원 미국 크리니티 신하대학원, 판엔 대학, 배원선 신 하대학에서 수하였다. 강남 대학, 총회 신학, 서울 신학대 등대학원 강자,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 타 대표, 글로리아 선로회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답입목사

를 예임하였다. 제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전기 예배의 이론과 실 제』,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세』, '담용적인 고단구단을 위하여』, '목숨적인 정조와 교화성장」, '목회자의 영화능력과 교화성장」, '목회자의 영재은사와 교회성장」, '대표기도랜드분」, '감사하는 영 훈의 양식 현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를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랑교화법』, '젊음」, "1867~2002 목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대박기 모든 20차 252인 기도로, 인 단소의 지선자 이다. 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정가 12,000원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经正外外의 时长

(3) 손영규 선교사 글로벌전인치유연구원(Global Holistic healing institute) 원장

불교 강성 경주지역서 교회발전에 노력

"경주지역은 불교가 강성한 지역 이라 기독교가 매우 낙후되어 있습 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포항 및 울릉 도 지역까지 연합해 유대관계를 견 고히 하며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 련됐으면 합니다. 그것에 글로벌전인 치유연구원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손영규 선교사(글로벌전인치유연 구원 원장)는 경주지역에서 기독교 의 영향력은 지극히 적으며 불교의 영향력이 강해서 제대로 자립한 교 회들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경주는 과거 신라의 수도였으며 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향력이 강해서 기독교교세 는 매우 약하고 큰 교회가 없고 교



손영규 글로벌 전인치유 연구원장

에 이바지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

한국교회의 7-80% 정도가 작은 교회이며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 많 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선교나 목회에 대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 다. 글로벌전인치유연구원을 개설 운 영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각하게 된 것은 교회들의 연 합이라는 것이다.

"경주의 교회들과 미주지역의 중 소형 한인교회들의 교류를 통한다 면 서로 자극도 되고 도전도 주고받 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교회를 이끌 고 나가는 리더십에도 상당한 영향 력을 주고받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 서는 차세대들 역시 교류를 통해 도 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 면 미주지역의 목회자들이 경주지역 교회를 방문 시 어른들 집회에만 강 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학생예배 에도 참석해 말씀을 전하면 학생들 에게 대단한 도전을 심어주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미국 학생들의 경우 아 무래도 미국교육을 받다보니 정체성

한미 교회교류 통해 정보교환 상호업그레이드 차세대 리더십 양성으로 세계 선교 비전 가져

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교 회를 타깃으로 활동하는 신천지 등 이단종파도 경주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 선교사는 경주지역에 기독교가 고전하는 이유로 경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원인이 있다며 인터넷 발전 등으로 교회들이 아무리 좋은 정보 와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도 워낙 기독교적 토양이 낙후돼 있어 전도 가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경주지역의 이러한 영적인 분 위기로 인해 현지 교회들이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질 뿐 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외부의 관 심도 약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규 선교사가 경주지역 교회들 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몸담 고 있는 가마선교회 업무와 관련해 서 경주로 내려갔을 때였다. 경주가 고향이기도 한 손 선교사는 경주지 역의 복음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막 상 현지에 내려가 보니 교회들이 고 전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고 전 하며 어떻게 하면 경주지역에 부흥 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 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마침 지역교회들의 요청이 있었습니 다. 즉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경북지 역의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모색해 나가는 것입 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교세의 약화로 인해 고전 하고 있는 교회들도 함께 교류하면 서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를 마련하 고자 합니다."

현재 경주지역 지역교회 모임은 김 중섭 목사(경주성광교회 담임)가 주 도하고 있고 손 선교사는 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경주지역과 해외교회들이 연합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지방의 복음화율에 비해 훨씬 열악한 영남지방의 작은 교회들이 성장 발전하는 동기가 되는 부분에 는 해외에 있는 지역교회들과 교류 로 인해 목회와 선교에 새로운 도전 받기 위한 점을 들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교류는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강단교 류와 세미나 등 연합행사 등을 통한 방법 등이다.

"보통 강단교류와 신학 및 선교관

련 세미나 등을 생각할 때 큰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큰 교회들과 연결이 되 면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중소형교회들의 경우 이러한 일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세미나 참석 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못해 참석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긴 하지만 지극 히 제한적이고요. 아마 미국 내 작은 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특수 지역 상황 속에 놓여있는 교회들이 미국 방문시 자 매결연식으로 되면 한국 상황들 소 개하고 미국 분들도 모국 방문할 때 자매결연을 통한 유대관계가 형성되 면 모국방문과 미주 방문 시 현지 상 황과 아픔, 고통, 비전 등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문을 넓혀가게 될 수 있습니다."

경주는 문화관광지역이며 대한민 국 내 최고의 관광지역이지만 정작 경주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 지 못한 채 사역에 힘겨워하고 있다 고 전하는 손 선교사는 한미간 교회 교류 등을 통해 정보교환 등 상호 업 그레이드는 물론 나아가 세계 선교

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의 목회자들의 미국방문 시 소형교 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신라의 정신이었던 화 랑정신 등)를 전해주면 아이들이 도 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족이 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손영규 선교사는 역대 한국의 정치 적인 리더십중 많은 사람이 영남지 방에서 탄생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독교 열세 지역인 영남지방의 작 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한국의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 닥치길 간절히 원한다고 피력했다.

손영규 선교사는 이비인후과 박사 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다 주님의 부르 심에 순종해 총회세계선교회(GMS)(예장합동)의 파송을 받아 중국선교 사로 사역했다. 현재 경주에서 의료 선교와 GMS선교본부 국제의료/상 담 코디, 글로벌전인치유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13면에서 계속〉

아라비아 사막에 한 성자가 은둔생활 을 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물질로 유혹 해도 안 넘어가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 유혹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

중에 대장 마귀가 "혹시 이 소식 들었 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에서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얼굴 이 험악해지더랍니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미워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실패 한 것이 아니다.", "불행한 사람을 불쌍 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쯤 있다면 우리 의 성공을 미워하는 사람은 천 명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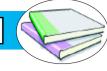
된다"라고 했고, "시기의 화살은 타인을 향하지만, 그 상처는 자신이 입는다"고

한 현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위 가 높아지고 칭찬과 존경을 많이 받으 면 교만의 병이 들고 시기심이 많아집 니다. 막10:45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 나님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 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기심 이 일어날 때마다 빨리 기도하여 물리 치고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며 남을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쩨쳭쇼개



"여리고로 가는 길"

저자 정총해 박사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 지난해 말 정충해 박사의 저 서로 출간됐다.

본서의 제목으로 사용된 "여리고로 가는 길"은 2011년 가을 '문학나무추천작품상' 수상작으로 본 서의 말미에 수록된 소설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 힌 것처럼 이 책은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이며 책 제목에 나타났듯이 신앙문제를 다룬 소설작품이다.

'여리고'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산적들이 출몰했던 우범 지 대였다고 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여리고로 가 는 도정의 이야기라고 추천서를 쓴 오순자 수필가는

여리고를 향한 한인 이민자들의 인생여정

한 이민 가정의 아픈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읽게 한다며 당선작으로 선정됐을 당시의 심 사평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학은 배고픔의 밥이고 가슴아픔의 위안이다. 이 명제가 신이 보시기에도 그럴 듯한 답을 하는 것 이 소설이다. 이 말을 접목시켜 당선작의 성패가 짚 어졌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파하고 아들이 아버지 를 아파하는 이야기'가 여리고로 가는 길을 알고 있 다는데 두 심사위원은 동의했다."

책은 2005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저자가 써 놓았던 작품들을 한 권으로 묶은 것으로 ■ 1954년 겨울 ■조국의 흙 ■ 요지경 ■ 약속의 땅 ■ 해는 져서 어두운데 ■ 아메리카와 올가미 ■ '욥기'와는 다른 이야기 • 아들의 눈물 • 각성의 모자이크 • 그가 떠난 까닭은 ■ 할아버지 ■ 여리고로 가는 길 등의 12개의 단편 소설들이 수록돼 있다. 총 328페 이지로 문학나무가 출판했다.

저자 정총해 박사는 1957년 서울대 문리대 불문 학과를 졸업하고 춘천 성수고등학교, 부산 고신대에 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1966년 도미, 세인트폴의 칼 리지 오브 세인트 토마스를 거쳐 미네소타대학교에 서 미술석사(MFA)와 일본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 며 인디애나대학교, 칼톤 칼리지, 위스콘신 리버 폴 스, 세인트 올프 칼리지에서 일본어와 일문학을 가 르치다가 은퇴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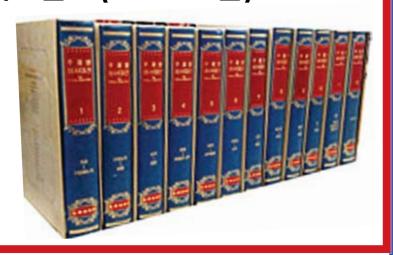
〈유원정 기자〉

JoyLA.com

주제별성서대전 80%0FF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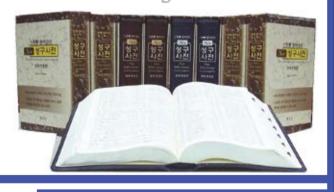
\$750.00 \$150.00



NEW

스트로 웨어코드

360,000절이 수록된 혁신적인 성구사전 스트롱 코드 번호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 New Bible Strong's Concordance



로고스 STRONG CORD

히브리어・헬라어 사전

HEBREW-GREEK **DICTIONARY**



싱경시진 NEW

LOGOS BIBLE DICTIONARY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히브리어, 헬러어를 병기함, 원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함 여러 역본을 단어와 구절마다 대조하여 병기함, 단어에 스트롱코드를 붙여 활용도를 높임 단어에 한자와 영어를 명시하여 이해를 도움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